

## “지금 여기 있는 탈북민 영적·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북한선교”

[힘내라! 한국교회 시즌3] 북부중앙교회 담임 김강오 목사

기독일보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연중 기획 인터뷰 ‘힘내라! 한국교회 시즌3’을 진행한다. 여섯 번째 주인공은 서울구 노원구 소재 북부중앙교회 담임 김강오 목사(66)다. 그는 2005년 탈북한 목회자다. 2017년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째를 맞은 지난해부터 김 목사는 교회로부터 사제비 2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김 목사의 사모가 식당 일을 통해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매월 첫째 주마다 모은 헌금으로 탈북 성도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송금하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김 목사는 탈북 성도들이 송금 과정을 통해 북한에 있는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북한에 있는 친족들이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북한 가족 숫자는 총 13명”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탈북민과 탈북 목회자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도록 영적·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북한선교”라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목회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저는 탈북민이다. 첫 탈북 시도 과정에서 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러다 2003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복송됐다. 함경북도 소재 보위부에 4달 정도 감금돼 매일 밤 보위부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등 종교적 죄명이 있는 사람은 보위부에서 계속 구타를 받다

가. 이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하면 총살을 당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다. ‘나를 구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후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석방해 주셨다. 2005년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왔지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유혹이 있었다. 니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에 간 요나처럼 노르웨이에서 1년 7개월 동안 체류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강권적 부르심으로 결국 2009년 총신대에 입학해 목회자가 됐다.”

**-신앙 안에서 복송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신앙 연단과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다. 첫째, 나의 교만, 탐욕, 정욕 등 죄적 본성을 뿌리 뽑게 하시기 위한 것. 둘째, 가정의 구원을 위한 것. 나의 복송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형님, 여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것.”

**-개척 목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2017년도 북부중앙교회를 개척했다. 처음엔 사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탈북민 7명이 합류했다. 현재는 35명 정도 출석한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남한 사람, 3분의 2는 탈북민으로 구성됐다.”

**-북부중앙교회만의 특징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통일을 인도하셨을 때 남한과 북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김강오 목사의 요청에 따라 찍은 그의 뒷모습이다. 김 목사가 향후 통일 이후 북부중앙교회가 북한에 세울 교회 50곳이 표시된 지도를 지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특히 문화와 언어적 통일이 이뤄지고 있다. 남한 사람은 북한의 문화를 알고, 탈북민은 남한의 문화를 깊이 알아가는 감동이 있다. 물리적 통일에 앞서 이렇게 탈북민 교회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를 소개해 달라.**  
“북부중앙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개척됐다. 저와 사모 모두 탈북민이니 물질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 교회에 반주해 줄 사람도 없었다. 저는 부교역자 경험도 없었다. 교회 행정 등 여러 가지를 잘 몰랐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목회를 접을까도 생각했다. 그때마다 귀한 손길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주셨다.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순종하면서 나오고 있다.”

**-현재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목회의 과정에서 재정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지난해부터 사제비를 받기 시작했다. 20만 원 정도다. 그 이전까지는 사제비 없이 목회했다. 현재 사모가 식당에서 일을 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 개척에서 사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삼방 등 사모가 교회 행사 대부분을 책임지며 섬기고 있다.”

**-교회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현재까지 3년째 둘째 주일 오후마다 성도들이 노방 전도한다. 열매는 크지 않지만, 복음을 들은 그들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다면, 이것도 성령의 열매이지 않은가? 물론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런 열매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꾸준히 전도하고 있다. 올해 2월 9일 전도 잔치를 열었다. 총 20명이 와서 5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은 복음 통일, 북한에 남겨진 탈북 성도들의 친족

들을 위해 특별기도회를 열고 있다.

또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선교헌금 주일’로 제정해, 모은 헌금으로 연 1회씩 탈북 성도 가정 한 곳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북부중앙교회 탈북 성도 대부분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 통화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필요한 돈을 송금하고 있다. 이 헌금이 북한 가족들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선교헌금 사역에 대해 더 알려 달라.**

“북부중앙교회에서 현재 북한에 친족이 있는 탈북 가정은 총 6곳이다. 북한 가족들과 연락하면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래서 북한 가족들을 돕고자 작거나 교회에서 돈을 모아 송금하고 있다. 전제조건이 있는데 송금을 할 때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한 탈북민 가정은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다. 계속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후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을 북한에 있는 친족들에게 설명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에 있는 친족들이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북한 가족 숫자는 총 13명이다. 그러나 현재 송금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과거보다 약 50%까지 치솟아 올랐다. 또 탈북민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재정적 여유가 없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에 바라는 탈북민이나 탈북 목회자에 대한 지원은?**

“첫째 영적 지원이다. 한국교회에서 오랜 기간 믿음을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집사나 권사분들이 1년 정도

탈북민 교회에 파송하는 사역을 진행했으면 한다. 여기서 탈북민들을 따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수요·금요일 새벽주일 예배나 교회 봉사, 심방 등 신앙생활을 묵묵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탈북민이나 탈북 목회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

둘째 재정지원이다. 탈북민 교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에 남겨둔 친족이나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탈북민 교회들이 이를 충당해줄 재정적 여유가 많이 없다. 북한 선교부를 가진 한국 대령교회들은 막연히 북한 주민을 어떻게 도울지보다, 하나님이 지금 남한에 보내주신 탈북민과 탈북민 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면 좋겠다.”

**-탈북민과 탈북 목회자에 대한 지원이 북한 선교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래야 북한 땅이 열렸을 때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서 토착민 선교를 하는데 가능한 것이다. 북한 사람의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이지 않은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탈북민과 탈북 목회자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도록 영적·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북한선교라고 생각한다. 현재 탈북민 교회는 70여 개다. 특히 탈북민 목회자 대부분은 사제비를 받지 않고 목회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막대한 영적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목사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노형구 기자

## 고현교회, 올해 상반기 전도축제서 성인 554명 교회인도

고현교회(담임 박정곤 목사·사진)는 최근 ‘두드림, Do Dream!’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도축제 ‘제 20회 예수 사랑축제 시즌1’에서 장년 554명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고현교회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봄 가을 ‘예수사랑축제 시즌1, 2’라는 이름으로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도 축제에서 성도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순

종해 전도에 적극 동참했다. 그 결과 장년 554명이 교회로 인도됐다고 한다.

고현교회는 이번 예수사랑축제를 위해 지난 5월 12일 주일 ‘제20회 예수사랑축제 개막식’을 먼저 열고 전도 축제의 시작을 선포했다. 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고 각 교구별로 준비한 전도 구조를 외치며 이번 축제에 동참하기로 결단했다. 이후 3차에 걸쳐 총 1224명의 VIP를 작정, 전도대상자로 삼아 적극적인 관계 전도에 참여했다.

특히 고현교회는 VIP작정 후, ‘감동/행복/만남으로 두드림’이라는 미션을 정해

온라인 말씀카드 및 정성스런 선물을 전달하고 대면 만남을 가졌다. 이를 위해 교구별로 담당 교역자, 심방권사, 구역장들이 지속적인 독려를 하며 힘을 보탤었다.

교회에서도 작정한 VIP들에게 전달할 맞춤 선물을 준비해 주고 성도들이 찾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전도 마트’를 운영하여 전도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약 2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와 저녁기도회를 진행했으며, ‘기도ON30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도를 위한 집중 기도도 이루어지

않도록 했다. 거의 매일 전도지와 전도 선물을 가지고 시내로 나가 지역 전도를 펼치기도 했다.

고현교회는 “그 결과 기존 성도의 수평 이동이 아닌 복음을 처음 접한 VIP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장기 결석자들이 대거 교회로 인도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했다.

6월 16일 축제일 당일에는 박정곤 담임 목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요 5:1-9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절박함과 모든 문제의 해결 답이 되신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오후 2시에는 ‘프누마 발



고현교회의 전도집회 현장의 모습. ©고현교회

레단을 초청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특히 오후에는 거제 시장을 포함해 1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광고와 자연을 품다**  
선착순 특별혜택 마지막 기회!  
전세대 전용 82㎡타입 구성

### 광고의 새로운 중심에서 탄생하는 원천역을 품은 신개념 주거단지

- 눈부신 미래비전 가치**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대 거점의 중심
  - 삼성디지털시티 확장 및 개발사업
  - 삼성디지털시티, 광고테크노밸리 등 직주근접 프리미엄
- 힐링 자연의 가치**
  - 약 150만평 자연친화적 영종송림을 앞마당처럼 누리는 숲세권
  -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광고 호수공원의 힐링 라이프
- 시티라이프 프리미엄 가치**
  - e편한세상이 만든 트렌디한 신개념 주거시티
  - 주민 건강 라이프 스타일 위해 피트니스 공간 및 어린이 육아방 운영(예정)

- 역세권 및 사통팔달 교통가치**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원천역 개통(예정) 개발호재
  -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 인접
  - 수인분당선(현행), 신분당선(광고중양역) 등 우수한 교통환경
- 편리한 생활인프라 가치**
  - 쇼핑, 문화, 행정 등 광고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풍부
  - 경기도청, 법원, 영통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환경
- 브랜드 프리미엄 가치**
  - DL 건설의 e편한세상 브랜드 프리미엄
  - 전세대 주민창고 제공
  - 전세대 4Bay 판상형 구조로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 구성

계약금 천만원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가능

주민창고 제공

에어컨 3개소 무상

문의 031.205.1870 e편한세상 시티 광고 웰스하임



# “야곱의 압복강 씨름처럼... 복음통일 위해 기도하자”

### 박한수 목사,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서 설교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가 예스타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오산리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행사 중 '압복강에서 압복강으로'(창세기 32:24-32)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통일 한국은 거대한 담론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에는 큰 것을 잡으라고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면 큰 것을 잡는 것”이라며 “통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다.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는 막연하게 통일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진행한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43.8%,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8%였으며 특히 이 응답에 응한 20대 청년 41.3%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경제적 부담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앞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30년 이상 걸린다’가 30.2%, ‘영영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 인식결과를 통해 통일은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50% 정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아쩔 수 없다는 인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게 낫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통일이 녹록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서, 이념, 정치, 사상들이 반통일적 성향이 되어서 통일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이어 “둘째, 주변 국가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주변 국가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허물어뜨리면 안 되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위신과 체면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기적으로 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을 보면 하나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나라가 없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은 절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목사는 “주변 국가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밖에 없으며 주변 국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



박한수 목사가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행사 중 설교하고 있다. ©에스타기도운동

리에게는 통일을 이뤄야 하는 숙제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셋째, 당사자인 남과 북한의 의지 문제이다. 서로 간의 통일 가치관이 다른데 남한은 평화통일, 북한은 적화통일을 원한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의 야곱과 에서는 원래 하나였으며 마치 남과 북이 하나였던 것과 같다. 이들의 극적인 화해는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야곱이 처한 현실은 오늘 우리처럼 압박 강이 짝이 없었다. 우리는 거대담론, 남북의 분열이라고 하는 38선으로 갈라졌고 교류를 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워야 할 한 혈통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큰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절대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은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당면과제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우리에게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통일이 아닌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약해지고 통일이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 것이므로 어떤 정부, 정권이든지 간에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화두가 남과 북의 통일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외치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도제목이 우선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각자의 삶에 바빠서 통일에 대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므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조차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계속 끄면서 미루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은 일종의 사명자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하거나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길 바란다. 야곱이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통일과 같은 거대한 산 같은 문제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의 문제를 생각하면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함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70년 동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면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북확성기, 성명서 발표를 하는 것뿐이며 이것은 마치 야곱이 형인 에서와 그의 군대를 맞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박 목사는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는데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정해야 한다. 압복강의 씨름으로 인해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라며 “이렇게 주님은 답답한 현실에 그것을 도와

주시러 오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괴를 흘리지 않고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야곱의 씨름에 있었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된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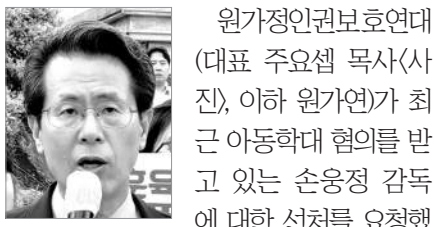
박 목사는 “야곱은 밤새 씨름한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며 울었으며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 장면이 남과 북을 통일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복음통일의 열쇠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개입, 약속과 언약에 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길밖에 없다. 정치이념, 사상 등으로는 복음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에서와 하나가 되었듯이 야곱처럼 남과 북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삼각형 원리를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손웅정 감독에 선처를... ‘엄벌주의’ 아동복지법 등 개정해야”

###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다. 아울러 현재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나친 엄벌주의로 오히려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원가정은 최근 춘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원가정은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등 3인이 아동학대 혐의 사건으로 피소됐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고소 학부모와 손웅정 감독 사이의 문제라 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왔지만, 느닷없이 ‘인권 감수성 부족을 비판하는 4개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이 선정주의와 흥미주의로 치닫는 것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 대한민국 의 자랑인 세계적인 윌클 축구선수를 길러낸 손웅정 씨가 지금까지 임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왔는지는 언론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졌기에, SON축구아카데미의 혹독한 훈련방식에 대해 크게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원가정은 “그런데 이를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 씌워 엄벌을 촉구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며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일반적인 스포츠 폭력 사건과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



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 사실인 모함인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중죄인으로 취급해 엄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살인을 저지른 형사범에 대해서까지 ‘미란다 원칙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자’는 아무런 도움 없이 방어권을 갖지 못한 채 마녀사냥을 당하게 된다”고 했다.

원가정은 “만일 이번 사건이 SON축구아카데미라는 지명도 있는 단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 연루자들이 스포츠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혀 아예 아동을 지도하는 일자리에서 가차없이 축출됐을지도 모른다”며 “그나마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인권 완장을 차고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권업계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비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 손 대표의 경우 국민들의 큰 호감도로 인해 꽤 옹호받고 있는 분위기가,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실제 사건의 개요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마녀사냥과 사회적 매장 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아마 더 많은 인권업계들이 달려들어 회생 불가능할 지경으로 내몰리고 만신창이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원가정은 “그동안 아동학대 프로세스를 아는 우리는 손 대표의 손흥민 선수 양육에 대한 내용이 화자될 때마다 지금

그렇게 키우면 바로 아동학대로 잡혀간다는 얘기를 주고받은 했었다.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며 “어떤 분야든 엄청난 노력과 희생 없이는 절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일관하며 마구잡이 강제분리를 능사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나치게 차갑게 적용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운동선수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라는 일부 국민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후 ‘처벌가능주의에 빠져 경미한 훈육적 처벌을 아동학대중범죄자로 낙인찍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마땅히 그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원가정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오남용 및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강제분리가 빈발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가정이 파괴되며, 훈육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타개하고 진정한 아동인권의 보호 및 원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설립된 시민단체다. 김진영 기자



# “복음통일 바라보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를”

##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셋째 날 일정 진행돼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기념침묵기도원에서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셋째 날 참석자들은 금식을 하기도 했다.

◆“성경,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날 첫 강사인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는 ‘하나님 왕국의 군대에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라’(마 6:33)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 받았고, 먼저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다. 하늘의 전략을 제시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며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장관이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자”고 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우리가 진정 대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삼위 하나님의 구속역사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성경 비평신학”이라며 “서구 신학계의 대부분이 성경비평을 받아들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북한구원 복음통일을 위한 금식”  
두 번째 강사인 이영환 원로목사(대전한말교회)는 ‘금식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기왕 금식하려면 말씀대로

해야 한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 금식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읽고 암송하자. 모든 인간관계에서 막힌 것을 풀어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자의 영, 혼, 육이 치유되고 물든 동산의 복과 물이 마르지 않는 샘솟는 복이 부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목사는 “오늘 하루 금식이지만 이 복이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금식하는 모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했다.

해외에서 온 13명의 기도자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북한 동포의 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번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참가했다고 한다. 에스더기도운동은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에게 90도 인사로 감사사를 표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화에 참석한 130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와 찬양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오후 두 번째 시간에 탈북민인 박복순 전도사(우로발교회)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했다. 박 전도사는 “감일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 한 자이고 북한 정권은 감일성만을 위한 사비비 독재정권이다. 북한 주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북한 땅이 야모스 선지자가 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남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한다.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간증 후 이용희 교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난 주 화요일 새벽에



조영길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강동환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참석한 외국인 기도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스더기도운동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외국인 참석자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북한의 문이 열리면 1년 이상 북한에 들어가 선교하기로 헌신한 150여 명의 기도자들 ©에스더기도운동

터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간증 후 이용희 교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난 주 화요일 새벽에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한국에 온 탈북민 중에 바닷가에서, 중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다는 지하교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 완전통제구역인 정지범수용소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복음통일, 사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음 순서에선 ‘임박한 복음통일을 깨어 기도’라는 제목으로 미주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소개한 후 집회를 준비하는 미주 통일광장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교회와 사회에 거룩 운동을 일으키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를 인도했다.

◆“북한, 멸망 직전의 동독 상황 닮아”  
이후 강동환 교수(동아대)가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강 교수는 “북한은 북조선 인민들만 수령복, 태양복, 장군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러한 복들이 없는 남조선 인민들은 불쌍하다고 세뇌시킨다”고 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장마당 세대가 사상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외부 정보가 유입되어 확산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북한은 지금 멸망 직전의 동독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동독은 두 개의 독일의 주장을 대립시켜서 ‘접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주민의 탈주를 막기 위해 철조망과 자동발사 소총을 설치했었다”며 “북한도 남한을 동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대국으로 여기고, 주민의 탈주를 막기 위해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동독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간 기도해 온

결과이며 가장 결정적 증거는 지금 북한 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이라 했다.

이어 이용희 교수는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한 7가지 기도제목과 기도문을 인도했다. 이날 성화에는 북한에 억류된 김정숙 선교사의 큰형 김경삼 대표도 함께 참석해 기도했다.

이후 이용희 교수는 ‘북한선교를 위한 1년 헌신자’와 ‘복음통일이 될 때까지 철야 기도 헌신자’를 요청했다. 이에 북한에 문이 열리면 1년 이상 북한에 들어가 선교하기로 헌신한 140여 명의 기도자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고, 안운용 목사(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고문)가 이들을 위해 축복기도했다.

이후 이용희 교수는 “북한선교를 위한 1년 헌신자”와 ‘복음통일이 될 때까지 철야 기도 헌신자’를 요청했다. 이에 북한에 문이 열리면 1년 이상 북한에 들어가 선교하기로 헌신한 140여 명의 기도자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고, 안운용 목사(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고문)가 이들을 위해 축복기도했다.

이후 이용희 교수는 “북한선교를 위한 1년 헌신자”와 ‘복음통일이 될 때까지 철야 기도 헌신자’를 요청했다. 이에 북한에 문이 열리면 1년 이상 북한에 들어가 선교하기로 헌신한 140여 명의 기도자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고, 안운용 목사(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고문)가 이들을 위해 축복기도했다.

한편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에7:3)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북한구원 금식성화는 4일차 김길수 목사, 문장욱 목사, 김요한 선교사, 김요한 선교사 등의 강연이 이뤄졌다. 마지막 저녁 집회 기도회 인도는 이용희 교수가 했다. 또 마지막 날인 5일차에는 박종상 목사와 김종철 감독이 강연을 전했다.

김진영 기자

## 제50차 CBMC 한국대회, 8월 14~16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서

### 국내외 5천여 명 실업인 모여



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C)에서 '제50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이

번 대회는 울산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다. CBMC 한국대회는 매년 국내외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 사역의 비전과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네트워크 현장이자 실업인의 영적 축제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오라, 즐거이 외치자’로, 회년의 자유와 회복, 기쁨을 나누며 앞으로의 5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4일 첫날은 예동렬 목사(우정교회)가 개최 예배를 인도하며, 방송인 오미희와

화가 김하민의 간증에 이어 박한길 에터미 회장이 특강을 진행한다.

15일 둘째 날에는 박성민 CCC 대표와 데이빗 마이어스 미국CBMC 대표, 김민준 초원비전 대표의 특강과 구제서 전 육군훈련소장의 간증이 이어지며, 저녁 집회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인도한다.

16일 셋째 날에는 크리스 심스 국제 CBMC 대표의 특강이 있으며, 폐회 예배에서는 이호상 목사(울산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

**GS** 건설

## 2024년 반드시 잡아야 할 오피스텔!

###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1.10 대책 주택수 제외 오피스텔

4.915세대 대단지 오피스텔

압리적인 분양가 2억원대

단지 내 영화관 등 원스톱 쇼핑

**교통 프리미엄**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과 신이문역 더블역세권, 9개 노선(예정)이 통과하는 청량리역 2정거장

**임대 프리미엄** 5km 내 외대, 경의대, 시립대, 광운대 등 13개 대학과 다수의 중앙병원 등 풍부한 임대 수요

**생활 프리미엄**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상봉동 코스트코의 쇼핑환경과 천장산과 중앙천의 자연환경 프리미엄

**복합 프리미엄** 4,915 이문 아이파크 자이 대단지 맨 앞, 메가 쇼핑몰을 단지 안에서 누리는 원스톱 복합 프리미엄

24m<sup>2</sup>A

528실

전 용 면 적	24,6700㎡
공 용 면 적	11,0814㎡
공 급 면 적	35,7514㎡
기타공용면적	24,4012㎡
계 약 면 적	60,1526㎡

**IPARK X** 선착순 분양중 1600-4452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오피스텔 총 594실(일반분양 584실) : 24㎡A, 528실 | 36㎡B, 22실 | 52㎡C, 22실 | 39㎡D, 22실

※ 이문3대입(비대입)주택개발사업조합 ※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 SEORO CBD

※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일러스트 등은 소위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인근 개발계획은 해당기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내용은 건축설계, 인·허가, 관련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1천만원

전매제한 無



# 오성종 교수 “신약시대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

기독교학술원 제1회 말씀, 기도, 목회 세미나 둘째 날 강연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환 박사)이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제1회 말씀, 기도, 목회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오성종 교수(前 갈빈대 신대원장, 기독교학술원 교무부장)가 신약시대 영성은 기도영성(4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오 교수는 “신약시대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언뜻 과장된 내지는 치우친 선언이 아닌가 하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며 “특히 교리적으로 말씀 심자가, 오직 예수는 항상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인 데 반하여 기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강조되어 왔다.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되었던 기도 생활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기도 생활은 신약시대의 영성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신약시대의 살아있는 열매 맺는 신앙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 이뤄지려면 기도 생활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구원 얻는 데 결정적인 결격 요건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시험에 빠지도록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한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응답 받는 것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신론이며 기도를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했다.



기독교학술원 제1회 말씀, 기도, 목회 세미나 둘째 날 기념 사진. ©기독교학술원

이어 “성령을 받는 것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며 “전도자의 능력과 설교의 영력을 얻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주로 기도를 통해서 이뤄진다. 바울 서신 중 자주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는 신자의 성화를 위한 기도가 주된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자의 영성생활의 기초요 모든 영성 훈련의 기본 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약에 ‘매일 성경을 읽으라, 묵상하라’는 명령은 없다. 반면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명령은 신약의 도처에 나온다”며 “신약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교회였다. 특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생활과 비교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성’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기도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천하는 일”이라며 “특히 세기 후반에 불어닥치게 된 오순절적 성령운동과 은사운동을 통해서 세계 교회는 이전의 전통적인 다양한 기도들 외에 새로운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에서 실행되었던) 기도의 형태들이 강조되고 실천되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방언기도, 대적기도, 명령기도, 중보기도, 안수기도, 예언기도 등이 있다”며 “물론 교계 일부에서 이 기도들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며 불건전하다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일부 신비주의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은사 운동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은사 운동과 성령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역시 지나친 것이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신약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불필요하게 되었

기 때문에 사도 시대 이후로는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성경적 역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실제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 기도들을 건전하게 실천함으로써 성도 개인들과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있는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판단 기준은 ‘성경과 건전한 열매’라고 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이뤄나가기 위해 의지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며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간의 죄성(바울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육신’)을 인정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며 “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성화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고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 한가협, ‘청년이여! 결혼하라’ 세미나 진행 중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작년보다 0.06명 줄어 0.72명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6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선한목자교회, 분당 갈보리교회, 목포 사랑의교회, 평택세교중앙교회, 지구촌교회 등 많은 교회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를 성경적 결혼 및 연애관 강사로 초청해 ‘청년이여 결혼하라’는 주제로 크리스천 청년들의 바른 결혼관을 정립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기독교 청년 결혼 컨설팅 회사인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에서도 김지연 대표를 수차례 초대해 청년들의 바른 연애관과 결혼관을 세워주고 있다.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관계자는 “김지연 대표의 ‘청년이여 결혼하라’ 세미나 이후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고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자발적이고 강력히 부여되는 모습을 본 이후 추가적으로 수차례 더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에서 본 강의를 들은 한 청년은 “결혼이 죄로 오여되기 전, 즉 창조 원형 세계 안에 있



한가협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한 ‘청년이여! 결혼하라’ 세미나 모습. ©한가협

었던 아름답고 원형적 제도이며, 에로스 만능주의에 빠져 ‘결혼하면 사람이 식는다’는 결혼에 대한 악성 루머를 성경적으로 교정받는 등 너무나도 알찬 구성에 놀랐다”고 했다.

이어 “원래는 연애 중인 이성 커플들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으나 모든 청년들이 듣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진행하게 됐다”며 “이 강의를 모든 한국교회 청년부들이 들으면 좋겠다”고 추천했다.

한가협 대표 김지연 약사는 “2020년 이후 ‘청년이여 결혼하라’라는 다소 원색적인 제목의 강의를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MZ 세대 청년들의 반응이 뜨겁고, 실천했다는 사후 피드백도 많이 들려와서 정말 보람이 있다”며 “OECD 38개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며

2021년 기준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0.7명대 출산율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작년 상황을 제외하고 유례가 없으며 만일 올해 통계청 예정대로 0.6대로 마감하게 되면 전보다 더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한가협 측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전 국민적 우려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와중에 많은 대한민국 교회 청년부를 상대로 성경적으로 결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청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비혼주의 문화의 교정과 바른 결혼관을 확립해 창조 질서에 맞는 가정을 이루고 생육, 번성, 충만, 증복, 다스림이라는 문화 명령을 잘 준행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결혼 독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CTS, 르완다 ICCC대학 교육관 헌당예배 드려

탄자니아 아프리카연합대학교(UAUT) 바라카홀 헌당예배에 이어 두 번째

아프리카 복음화를 꿈꾸는 CTS기독교TV(CTS)가 탄자니아 아프리카연합대학교(UAUT) 바라카홀 헌당예배에 이어 지난 2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도 ICCC(International Covenant Christian College) 대학 교육관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르완다 키갈리에 위치한 ICCC 대학 교육관에서 열린 헌당예배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시설이 세워져 자라 마을 주민들은 물론 르완다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를 전했다.



르완다 ICCC대학 교육관 헌당식 기념 사진. ©CTS

이번에 완공된 르완다 ICCC대학 교육관은 5개의 강의실과 전문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르완다에서 ICCC 대학은 지역 아이들을 보살피는 무료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국가적 모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키갈리 키츠키로구청 매니저 무렌지 도네이션은 “이제 우리는 이 교육관이 우리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관이 우리



르완다 ICCC대학 교육관 사진. ©CTS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착박한 지형으로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르완다의 상황 속 이번 ICCC대학 교육관 완공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기독교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3년 ICCC대학 부지 구입부터 건축은 물론 대학 운영의 전방위 지원을 이어온 CTS는 이번 헌당예배를 통해 르완다를 넘어 아프리카 전 대륙을 복음화할 교육선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르완다 ICCC 대학은 이번 교육관 건축을 계기로 르완다의 영유아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과 신실하고 아동교육전문가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장요한 기자

Come feel the love

### PRINCESS

## ‘크루즈여행 가상 체험’ 이벤트!

동반자까지 총 20명에게 프린세스 선사 초청 썸 크루즈 ‘선상 투어 및 정찬’ 기회를 드립니다!

QR로 응모하세요!

프린세스 크루즈 공식 소셜 채널 및 웹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이벤트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이벤트 페이지 접속

이벤트 기간: ~2024년 8월 12일까지!

선박투어 및 정찬 날짜: 2024년 8월 31일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정찬 장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여행 문의 및 상담: Tel. 02)318-1918

프린세스 크루즈 한국 지사 www.princesscruises.co.kr



#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코란 태웠다' 누명... '쓰라린 역사' 되풀이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와 순교자의 소리의 파키스탄 지역 동역자인 영국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에 따르면, 지난달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에서 수많은 군중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제화업자 노인이 살해된 사건을 지지했고, 주최측은 다른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운명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펀자브주(Punjab Province) 사르고다(Sargodha)시에서 74세의 기독교인 제화업자 나지르 마시 길(Nazeer Masih Gil)이 살해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인 6월, 2,500명이 같은 장소에 모여 그 살해 사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테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Tehreek-e-Labbaik Pakistan)이 주최한 이 집회에서는 기독교인 제화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로 벌어졌다.

최근에 제기된 이 신성모독에 대한 주장은 2023년 이후 사르고다(Sargodha)시에서 이슬람 반대로 발생한 것이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 풀리(Hyun Sook) 대표는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신성모독 주장이 특별히 우려스러운 점은, 사르고다가 대도시이고 대중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도시는 아름다운 오렌지 농장 때문에 '파키스탄의 캘리포니아'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의 웹사이트에는 '사르고다 시민은 매우 평온하고 관대하며, 파키스탄이 건국된 이래 다양한 파벌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단 한 번의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지난해 9건의 신성모독 혐의로 제기되고, 노년의 기독교인 제화업자 나지르 마시 길(순교하고, 2,500명의 군중이 결집하여 그 살해 사건을 지지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추가 폭력을 위협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소리의 동역자인 영국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그 집회에 관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의 지도자 무함마드 나임 차타 카드리(Muhammed Naem Chattha Qadri)가 그 집회에서 군중들에게 "코란을 불태운 그 '쭈후라(chuhra, 불가촉천민)'를 죽인 것이 뭐가 잘못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쭈후라는 환경미화원과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다.

카드리라는 "누구든지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사람은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드리는 "만약에 신성모독자들을 보호하려 한

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경찰을 협박하기도 했다.

2024년 5월 25일, 기독교인 나지르 마시 길은 코란을 모닥불에 태웠다는 비난이 사원의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자 2,000명에 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격렬하게 들고 일어났다.

현숙 풀리 대표는 "우리 동역 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의 보고에 따르면, 나지르의 아들은 폭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며,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폭도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했다. 폭도들은 그 기독교인 노인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발로 차고 구타한 후 노인의 신발 공장과 집을 약탈하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 풀리 대표는 "폭도들은 경찰이 개입하려 하자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나지르를 병원으로 신고 가는 구급차에 벽돌을 던졌다"고 했다.

부상당한 나지르는 9일 후 사망했다. 똑같은 70대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나지르의 아내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영국의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순교자의 소리에 전한 보도에 따르면, 나지르의 아들 술탄(Sultan)은 이번 공격이 신성모독



지난 5월 25일, 폭도들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 순교자 나지르 마시(Nazeer Masih). ©한국 순교자의소리 제공

때문도 아니라, 자신의 부친의 사업이 성공하자 질투심에서 가게를 폐쇄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부친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현숙 풀리 대표는 릴리즈 인터내셔널의 보도를 인용, "펀자브주에서는 작년 8월에도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이후, 폭도들이 자란왈라(Jaranwala)에 있는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했다. 폭도들은 교회와 집을 불태웠지만, 감사하게도 기독교인들은 피신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숙 풀리 대표는 파키스탄에는 기독교인들이 코란을 태웠다는 근거 없는 비

난이 쓰라린 역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97년 2월, 기독교인들이 코란을 불태웠다는 허위 고발에 근거하여, 3만 명 이상의 무슬림 폭도들이 카네왈 지구(Khanewal District) 산티 나가르(Shanti Nagar)에서 기독교인 마을과 교회를 불태웠고, 2005년 11월에는 1,500명이 넘는 무슬림이 비슷한 고발에 근거하여 샨라힐 지구(Sanglail District)에 있는 교회 세 곳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성탄절 전야, 펀자브주 나로왈 Narawal 지구의 작은 마을 코틀리 무함마드 사디쿠에(Kotli Muhammad Sadique)에서, 최근 신성모독 혐의로 제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300명이 넘는 폭도들이 교회 밖에 모여, 코란 몇 페이지를 불태웠다고 전해지는 기독교인들을 남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가난한 기독교인 노동자이자 다섯 자녀의 아버지인 일리아스 마시(Ilyas Masih)를 실수로 체포한 뒤에 구타했습니다. 고문을 당한 일리아스 마시는 모닥불을 처음 피운 청년들의 이름을 말했으나, 청년들은 명절을 축하하려고 모닥불을 피운 것이 코란을 태우려고 피운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혐의는 결코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숙 풀리 대표는 박해 환경에 남기를 선택하거나 그런 환경에 남을 수 밖에 없는 기독교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순교자의 소리가 영국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에 1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나라를 탈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도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파키스탄의 경우, 기독교인의 도피를 돕는 것은 공격자들이 남아 있는 기독교인을 더 가혹하게 공격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방법은 또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약한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증언이 절박하게 필요한 곳에서 그 증언을 침묵시키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 성도들이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 있고 그 지역 사회가 미래의 다른 신자들에게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서고,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신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윤식 기자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영등포 노숙인·쪽방 주민 섬겨

가야대(회장 최창남)는 가자지구 전쟁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병원을 포함한 주요 시설 및 인프라가 붕괴됐다. 물, 전기, 식량 공급도 줄어들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설사, 황달, 수막염, 수두 등 전염성 질환까지 급증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지난 4월까지 사망한 아동은 1만4,500명이다. 지난 3월 발표된 통합식량안보단계 IPC보고서는 가자지구 인구 절반인 11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7월 중순 경에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 식량 재앙-기근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가야대측은 '가자지구 아동돕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왼쪽 두 번째)가 무료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급식 나눔에 앞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긴급지원 캠페인을 진행하여 가자지구 아동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식량 및 의약품을 지원한다. 이번 구호활동은 가자지구 내에서 접근 및 직접적 활동이 가능한 협력단체 IHP(International Health Partners), HORA(House on the Rock Association)와 공조로 진행된다.

전두위 희망친구 가야대책 나눔참여

본부장은 "지금도 가자지구에서는 가슴 아픈 전쟁 상황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며 "가야대책의 국제구호 전문성과 철저한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 및 위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수많은 이웃과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야대책은 1994년부터 내전 및 분쟁, 자연재해 등 재난에 처한 지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건될 수 있도록 긴급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라-우크라이나 전쟁 시 난민 긴급구호금 및 물자를 지원했으며,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발생 시에는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정착촌을 지원하여 이번 6월 현지에 이양한 바 있다. 최승연 기자

## 태화복지재단, 캄보디아 대학 신입생 8명 선발... 졸업까지 후원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은 최근 캄보디아 바탐방감리교회에서 '드보라 프로젝트 1기' 결성을 기념하는 개회예배를 개최했다. 드보라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에 크리스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월 신앙과 학업에 열정을 가진 만 18세 여학생 8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전부터 졸업 후까지 6년간 학업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 전에는 학습비, 학습용품 지원, 학습지도 및 멘토링을 받으며, 대학 진학 후에는 필요 시 주거비도 후원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과 부족한 교육 환경 때문에 고등교육 이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20% 이상이다. 드보라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8명의 학생들은 크리스천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 자원봉사, 영성교



'드보라 프로젝트 1기'에 선발된 여학생이 협약식에서 지장을 찍고 있다. ©태화복지재단

육 등을 받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교회와 캄보디아 가 직접 결연 형태를 가진다. 드보라 프로젝트 1기에는 한국교회 8곳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1:1로 연결된다.

노형구 기자

### 한국도로공사 창립 55주년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한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생활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500만대가 이용하는 행복한 고속도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ex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2024 신입사원 인재영입 **원서접수** 7.4(목) ~ 7.18(목)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참조



# 창립 37주년 한빛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빛의 사명 다 하는 교회”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한빛교회(고광훈 목사, 7941 Page St., Buena Park, CA 90621)는 6월 30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창립 37주년 기념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김영근 차리목사(샘솟는 교회 담임)의 집례로 드러진 37주년 기념예배에서 황규동 목사(지방회서기 성문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집례자가 창세기 29장 31-32절을 봉독한 후, 한빛 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박병주 목사(지방회 산소망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제2부 순서로 진행된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박병주 목사의 서약, 지리권 부여, 공포에 이어 담임 목사로 취임한 고광훈 목사가 답사했다.

제3부 축하의 시간에는 기념패 증정(고광훈 목사), 축사(신동수 목사, 전 지방회장 로고스교회 담임), 권면(이종일 목사, 삼리부장 방주교회 담임), 광고(김신웅 장로), 축도(최경환 목사, 전총회장 사온교회 원로목사)가 있었으며, 제4부 친교시간을 위해 박성삼 목사(전총회장 링컨사이어 한인교회 원로목사)가 기도했다.

◆삼손의 삶을 통해 본 세가지 교훈: 빛의 사명, 누구를 중심삼은 삶인가, 하나님의 능력

창립 기념예배에 앞서, 이날 “한빛성결교회”라는 제목으로 드린 주일예배에서 고광훈 목사는 사사기 16장 18-31절을 본문으로, 한빛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삼손의 삶에서 세가지 측면을 들어 설교를 이어갔다. 첫 번째는 삼손의 이름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 누구를 중심으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삼손의 이름과 그와 대조적이었던 그의 삶의 정황을 설명하며, 한빛교회의 이름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삼손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다. 이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16:2-3절을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났다. 무려 네번이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 이후 단체 사진을 찍었다. 맨 앞줄 왼쪽 두번째가 고광훈 담임목사, 왼쪽 네번째가 차광일 원로목사. ©주디 한 기자

나 밤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한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다. 빛의 자녀가 밤의 여인을 만나 깊은 밤에 빠져 있다. 삼손은 두 눈이 빠져서 깊은 암굴을 체험하게 된다. 빛의 자녀가 어둠에 다니면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있다. 한 빛 교회가 빛 되신 주님 잘 따라가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그는 “두 번째, 삼손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삼손의 스토리는 이방 여인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하나

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써져야 한다”며, 한빛 교회의 이름 ‘성결’에 담긴 의미를 강조했다.

“삼손의 삶을 여러 각도에서 봐도, 그의 삶에 어떤 경건도, 거룩함도, 성화의 과정도 아무 것도 없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삼손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아무런 영적인 힘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한빛 교회는 한빛 성결 교회이다.

성결 교회는 ‘중생-성결-신유-재림’이 4대 전도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성결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성결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라며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릴 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결이 소홀해지고 있는 시대이다. 우리는 성결 교인이다. 성결의 삶을 살고자 더 땀부림처럼 나아가야 한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로 눈이 뻘히고 눈썹에 포박되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그를 통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사 16:38)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빛이라는 이름도 중요하고 성결이란 이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이름이다. 교회는 건물이고 간판을 세웠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곳이 교회이

다. 사대 교회(계 3장)를 향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하신다. 유럽의 교회가 교회가 술집, 나이트클럽,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게 되었는데, 유럽에서 35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셨다. 앞으로의 시대는 성령 충만한 교회만 남게 될 것이다.”

3대 담임으로 취임한 고광훈 목사는 아주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한빛교회에서 부담임으로 섬겼다.

한빛교회는 1987년 6월, 차광일 목사와 두 가정이 LA 동부 웨스트코버나 인근 나사렛교회를 빌려 시작되었다. 1997년 웨스트 코버나에 첫 성전을 구입한 이래 2005년 새 성전을 건축한 후 성장을 계속했고, 2014년에는 부에나파크의 건물을 구입해 입당하며 새로운 부흥의 차원을 열어갔다. 차광일 목사(한빛교회 원로목사)는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장, 미주성결교회 해외선교 위원장, 미주성결교회 제34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주디 한 기자

##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2024 VBS, 기독교 신앙으로 다음 세대 양육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가 어린이들의 방학을 맞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여름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 이하 VBS)에 18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 VBS에는 한국계 어린이들뿐 아니라 미국 커뮤니티와 다민족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는 교회에 처음 방문한 어린이들도 많았다.

어린이들은 VBS 기간 신나는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각종 야외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시원한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또한 각 연령대에 맞도록 진행된 성경공부와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이번 VBS에는 성경 공부와 찬양, 스킷 드라마, 식사 준비, 주차장 안내, 크래프트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 봉사자만도 150여 명이 참여했는데, 차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돋보였다.



행사를 마친 후 단체 사진 촬영에 임한 어린이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함께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참여활동 중인 어린이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특히 마지막날에 교회 뒷마당에서 진행된 패밀리 펠로우십에는 영어부 성

도들이 핫도그와 햄버거 등 각종 음식을 준비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한 가족

들을 환영하며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배려했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이번 VBS를 홍보를 위해 타코마 공원 등지에서 노방 전도를 통해 지역 아이들을 초청했으며, 부모들이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별도의 등록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차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VBS를 선교지 아웃리치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등록비도 무료로 진행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VBS가 아이들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VBS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 문화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이들을 지역 교회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한편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차세대 신앙 계승과 전도를 위해 아와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도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민선 기자

## 남가주, 여름 성경학교 시즌!

VBS는 방학의 시작과 함께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은혜한인교회는 지난 화요일(6/18)부터 토요일(6/22)까지 “SCUBA”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쳤다. ANC은누리교회는 같은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VBS를 진행했고, LA사랑의교회는 “누가 챔피언이 될 것인가?”(거룩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상 10장을 공부한다. 프리스쿨부터 1학년까지는 7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사랑의교회 은혜채플에서, 2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페퍼다인 대학교 엘리스 강당에서 진행한다.

남성영락교회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The Great Jungle Journey”를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타락, 재단, 혼돈,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에 대해 배웠다.

한길교회는 6월 20일부터 22일(목-토)까지 영유아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유년부 “Food Truck Party”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Breaker Rock Beach-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로마서 12:2)는 주제로 6월 25일부터 28일(화-금)까지, 유치부, 유년부까지 VBS를 진행한다.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6월 19일(수)부터 23일(주일)까지 “Arise, shine for thy light is come”이란 주제로 VBS를 진행했다. 주디 한 기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타락, 재단, 혼돈,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에 대해 배웠다.

한길교회는 6월 20일부터 22일(목-토)까지 영유아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유년부 “Food Truck Party”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Breaker Rock Beach-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로마서 12:2)는 주제로 6월 25일부터 28일(화-금)까지, 유치부, 유년부까지 VBS를 진행한다.

웨스트힐 장로교회는 6월 19일(수)부터 23일(주일)까지 “Arise, shine for thy light is come”이란 주제로 VBS를 진행했다. 주디 한 기자



은혜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2024 녹색·에너지 대박

REVOTECH  
REVOLUTIONARY TECHNOLOGY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공공열분해 선순환

### ● 재생자원(합성수지류)을 에너지로!

## 국내 최초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43 | www.revogreenpia.kr



# 2024 한국선교KMQ포럼 '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의 선교'

7월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개최



오는 9월 제4차 서울-인천 로잔대회를 앞두고 2024 한국선교KMQ포럼이 '4차 로잔과 한국교회의 선교'를 주제로 7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

란노홀에서 진행된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하고 선교 전문 계간지 한국선교KMQ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며, 한국선교KMQ 편집인 성남용 목사(삼광교회)가 포럼 개요 및 취지를 전한다.

세션에서는 제4차 로잔대회 준비위원회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온누리교회 선교본부장)가 '4차 로잔대회 준비 현황'을 소개하며, 로잔 글로벌 공청회팀(Lausanne Global Listening Team) 공동 리더 문상철 박사가 '글로벌 북음주의 선교를 위한 7가지 도전, 제4차 로잔대회 부위원장이자 한국로잔위원회의 총무 최형근 교수가 '4차 로잔대회 신학문서에 대해 발표한다. 곧이어 세션에서는 제4차

로잔대회 준비위원회 총무이자 국제로잔운동 이사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가 '로잔운동과 세계 기독교, 로잔 공동설교를 위한 말씀 네트워크'를 소개하며, 로잔 공동설교인 김유복 목사(대구 기쁨의교회)가 사도행전 공동 읽기 및 공동 설교, YLGen(청년 리더 세대) 서동준 목사가 '로잔운동과 청년에 대해 발표한다. 각 세션 후에는 질의 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며,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이 준비됐다. 이지희 기자

## 배재학당 개교 139주년·총동창회 창립 113주년 '2024 배재인의 밤'

지난달 28일 신촌 케이티홀서 300여 명 참여

배재학당 개교 139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113주년을 맞아 배재학당총동창회(오용환 회장)가 6월 28일 서울 신촌 케이티홀 신관 2층 컨벤션홀에서 '2024 배재인의 밤'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배재학당총동창회가 주최하고 배재학당, 배재중고등학교, 배재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10대 배재중고 재학생부터 90대 동문까지 300여 명의 배재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박성윤 동문(83회)의 사회로 시작한 제1부 공식행사는 오용환 배재학당 총동창회장의 개회 선언, 총동창회기 및 동문들의 입장에 이어 국민의례, 차재일 광희문교회 목사(92회)의 기도, 이기영 배재학당총동창회 수석부회장(91회)의 내빈소개가 있었다. 이어 오용환 총동창회장의 환영사,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성렬 배재투르크예문동화회장(88회), 추승원 미국 남가주동문회회장(97회)의 영상 축사, 강승구 양정총동창회장(양정고 제39대 총동창회

장의 축사가 있었다.

오용환 총동창회장은 이날 "8만 배재인은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과 배재가 쌓아온 위상과 명예를 되살리는 꿈이 있다. 배재의 영광을 다시 일구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동문 여러분이 뜻을 모아 배재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고, 배재학당이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8만 배재 동문 모두가 각별한 애정을 갖고 동문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고, 김성렬 회장은 "위대한 이승만 선배와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배재학당은 월드 클래스이고, 그 자체가 역사와 전통이다. 이를 유지하는 일은 8만 동문의 사명"임을 강조했다. 강승구 양정총동창회장은 "양정과 배재가 함께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랑스러운 배재인상' 시상식에서는 자랑스러운 배재인상 선정위원장인 김일영 예비역 해군 제독(78회)이 경과보고를 한 후, 오용환 총동창회장이 '2024 자랑스러운 배재인'에 선정된 전 연세대 용인



2024 배재인의 밤 행사가 지난달 28일 신촌 케이티홀 신관에서 개최됐다.

세브란스병원장인 문병수 동문(86회)에 상패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공로패, 영전패, 당선패,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김일영 선정위원장은 "문병수 동문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배재인"이라며 "배재학당 학생들이 자부하는 학교가 되고, 현재 나누어져 있는 동창회가 하루 속히 통합되어 하나의 배재 동창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암 분야 권위자인 문병수 동문 1971년 배재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과대학에 입학, 본과 1학년 때 학원 민주화운동을 하여 12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다. 연세대 의과대 내과학교실에서 25년간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소

화기 내과 환자를 돌보고,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10년간 병원장으로 일하고 정년퇴직했다. 지금은 안산근로복지공단병원에 산업재해보 불구가 된 환자를 돌보며, 2023년부터 배재코랄 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문병수 동문은 이날 "배재학당 6년의 확장 시절을 통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가르침으로 사랑과 배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배재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쌓을 수 있었고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배웠다"라며 "저에게 배재를 더욱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배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희 기자

## 2024년 22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금식 기도회

새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 이사장 명근사대표회장 이훈)가 오는 7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4층에서 '22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금식 기도회'를 개최한다.

2003년부터 매년 제헌절을 전후로 열린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기도회'는 한직선 본부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지역직능연합회 주도로 각 지역 기독교단체와 연합하여 진행됐다. 특히 구국기도회 전 21

일간 하루 한 끼 이상 릴레이 금식을 하고, 기도문을 SNS에 나누며 기도회를 준비해 왔다. 올해 기도회는 서울시청기독교연합회와 공동 주최하고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세직선), 한국직장선교대

학(직선대), 한국기독교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직목협), 직장선교사회문화원(직선문), 한국직장선교연구소(직선연) 등이 공동주관한다. 크리스천 직장인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 안보칼럼⑬

## 국가보훈과 독립묘지(9)

국립묘지는 부채의식을 확인하는 장소이다. 보답의 의미를 새기며 걸어야 할 곳이다. 보답의 본질은 기억이다. 국립묘지는 살아있는 역사



이범희 목사

의 현장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 세대를 이어주는 곳이다. 현충탑과 위패 봉안관 뒤편에는 재일학도의용군 전몰 용사 위령비가 있고, 그 뒤쪽은 제16묘역이 있다. 그곳에는 재일학도의용군 전사자 51위가 안장되어 있다. 아랫글은 위령비에 쓰인 추모의 글이다. 뒷면에는 전사자와 실종자 13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내 나라 구하려고 피를 뿌린 선조들/역사의 책장 위에 꽃을 놓으셨네/조국의 포근한 흙속에 웃으며 잠드소서'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 경위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40일이 경과한 8월 초순, 18세의 동포 소녀가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제 조국은 제 손으로 지키고 싶다면 참전을 허락해 달라라는 편지를 보내면서부터였다. 이 사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자 동포 사회는 발각 뒤집혔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여자라는 장벽을 무릅쓰면서 참전 의사를 보이는데, 남자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건 용기를 상실한 것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1950년 8월 8일 재일 대한민국 거류민단(민단은 도쿄 중앙본부에 지원병지도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지부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고, 주일 대표부(공사 김용주)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맥아더 사령관에게 참전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최고 사령부 앞에서 연좌농성과 피켓시위에 열사까지 쓰면서 수차례 탄원서를 냈지만 거부되었다. 이들의 참전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공산주의의 위장침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9월 초 맥아더 사령관은 재일동포의 참전을 허락하고 영어통역이 가능한 1천 명을 모병하였다. 인천상륙에 투입할 통역병과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1950년 9월 7일 재일동포 청년들이 사이타마현 아사키의 미 제1기병단에 입소했다.

그리고 9월 13일 요코하마 항에서 제1진 69명이 수송선 파닉스 호에 탑승해서 행선지도 모른 채 출발했다. 미군의 군복을 입었지만 부대마크, 계급, 군번도 없이, 단지 'S.V. FroM JAPAN'이라고

이름 뒤 새벽 인천 앞바다에 도착하여 미 해병대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아사키 기지에서 491명, 규슈 오이타현 벳부 미8군 3사단 캠프에서 훈련받은 151명이 시세보 항에서 미군과 함께 LST(Landing Ship Tank)를 타고 부산을 경유하여 원산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1천여 명의 지원자 중에서 여성과 불합격자를 제외한 642명이 참전하였다. 대부분 일본에서 고교나 대학에 다니던 엘리트 청년들이었다. 고국이 없어질 판인데 일본 땅에서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서러움과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 참전의 이유였다.

재일학도의용군은 미 제7사단 17연대와 31연대, 제3사단 제7연대, 15연대 미 공군 6보급부대, 45부대, 60부대, 제92화기중대, 국군에도 배속되었다. 이들 부대는 38선을 넘어 복진한 부대로 평양을 탈환하고 신의주, 장진호까지 진격했다. 재일학도의용군 642명 중 135명이 전사, 실종되었고 부상자도 많았다.

생존자 507명 가운데 265명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242명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한 일본이 임의의 출국자로 규정하여 재입국을 거부함에 따라 국내에 남겨졌다. 이들은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이산가족이 되었고, 어려운 생활고에 내던져졌다. 1968년 원호법 개정으로 비로소 작은 혜택이 주어졌지만, 일본 거주자는 1985년부터 소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재일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공헌은 대단하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총 외국인 투자액의 절반을 차지했고, 최초 수출단지 구로공단 설립을 주도하고 투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780억 엔을 송금하고 300억 엔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숨통을 터 주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100억 엔(641억)의 성금을 기부했고, 올림픽회관 등이 이들의 성금으로 세워졌다.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과 9개의 공관도 재일 동포들이 세웠고, 민단의 부인회는 7년간 우수리(잔돈) 모이기 운동으로 16억 4천만 엔을 모금하여 수세시 화장실을 우리에게 선물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국가는 보훈으로, 국민은 보은으로 이분들을 기억하고 함께해야 한다.

이범희 목사(6.25역사기념연대 부대표, 6.25역사위원장)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http://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본편(제24-08호(2024.3.11.~2025.2.28))  
 위 링크는 내부통계 기준에 따른 관련 정보를 게재 예정입니다. (예금저축보안 안내)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책임보험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공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英유권자 77% “표현의 자유 중요... 어려운 문제 토론할 수 있어야”

최근 영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권자가 표현의 자유와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기독교자선단체 케어(CARE)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분의 3(77%)이 “정치인들은 생각을 말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자

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사반타(Savanta)가 실시했으며 영국 성인 2천54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 케어(CARE)의 CEO인 로스 헨드리는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하며 정치인들에게 차기 의회에서 자유로운 언론과 토론

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차이와 의견 불일치는 정치의 일부다. 정치인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강건하게 토론하고 좋은 민주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사

람들이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인다. 당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우리의 정치적 담론에 예의, 품위, 좋은 토론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고 싶다. 다양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겸손과 존중을 바탕으

로 표현되고, 다양한 견해가 허용되는 토론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케어에서 우리는 예의와 상호 존중으로 완화된 자유로운 언론이 선을 위한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 다음 의회에서 이를 위해 헌신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영국 전역의 유권자들은 7월 4일 투표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보수당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천 여명은 우편 투표 지연에 대한 보고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노동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0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명경 기자

## 영화 ‘레이건’ 출연 배우 “그는 겸손함과 깊은 신앙 가져”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카리스마, 냉전 시대의 리더십, 시인과 같은 유대감으로 잘 알려졌다. 곧 개봉하는 영화 ‘레이건’에 출연한 배우 데니스 퀘이드는 “그의 겸손함과 깊은 신앙 덕에 미국 역사상 격동의 시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했다.



영화 ‘레이건’에 출연한 배우 데니스 퀘이드. ©Rawhide Pictures

8월 30일 개봉하는 영화 ‘레이건’에서 레이건 대통령 역을 맡은 퀘이드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확실히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로널드 레이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있다. 그는 무하마드 알리처럼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을 진정으로 구현하기 위해 단순한 모방을 넘어 관객들이 그를 대중적 페르소나를 넘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퀘이드는 레이건 부부의 집을 방문했고 그의 겸손함이 자신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두 개의 싱글 침대를 지퍼 타이로 묶은 킹 사이즈 침대를 가지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작동하기 위한 세 개의 리모컨이 있었고 낸시가 적은 작동방법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정말 그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영화를 만드는 데 동의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실제 인물을 연기할 때, 그들의 관점에서 묘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로널드 레이건이 훌륭한 소통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정으로 알기 어렵게 만드는 매우 사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의 아내 낸시는 아마도 누구보다 그를 잘 알았을 것이지만 거기에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

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사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레이건’은 작은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할리우드를 거쳐 세계적 정치적 영향력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추적한다. 전 KGB 요원인 빅토르 페트로비치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레이건 대통령의 영향력을 탐구한다.

퀘이드 외에도 이 영화의 출연진에는 낸시 레이건 역의 페넬로페 앤 밀러, 제인 와이먼 역의 메나 수바리, 마가렛 대처 역의 레슬리-앤 다운, 젊은 레이건 역의 데이비드 헨리, 잭 워너 역의 케빈 달런, 페트로비치 역의 존 보이트가 있다. 이 영화는 ‘소울 서퍼’와 ‘미라클 시즌’으로 유명한 한 맥나馬拉가 감독을 맡았다.

당초 2023년 개봉을 목표로 계획된 영화 ‘레이건’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로 인해 제작이 지연되었고 배우 파업으로 인해 개봉이 연기됐다. 중단 후 7개월 만에 촬영을 재개했다.

퀘이드에 따르면, 영화 ‘레이건’은 일리노이주 스텝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미 국민에게 특별한 사를 하는 모습까지 레이건의 삶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을 연기하면서 개인적 투쟁

과 회복력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레이건은 “그것은 러브레터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묘사했다”라며 “하지만 그에 대한 것만큼 우리에게 대한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그는 “레이건은 배우로서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B급 영화에서 연기하는 것 이상은 하지 못했다”라며 “그의 신앙은 그가 인생에서 그 목적을 찾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다.

퀘이드는 “영화 ‘레이건’이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극장에 가서 관객과 함께 경험하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다. 이 작품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에 희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국민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지혜에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는 지금 레이건이 집권하기 전과 매우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는 냉전에서 승리했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끼게 했다”라고 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은 놀라운 삶을 살았고 놀라운 사람이었다. 이 영화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그의 삶의 이야기다. 이 영화는 그와 낸시 사이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인데, 대중이 전에 본 적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명경 기자

## 바이든, 토론 이후 트럼프와 격차 벌어져... 8%p까지

NYT “49% 대 41%”... WSJ “48% 대 42%”  
CBS 조사선 2%p 차... 고령 우려도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토론 참여 후 거센 시위 압박을 받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3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사에나데가 지난 달 28일부터 이날 2일까지 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9%로 나타났다. 토론 전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6%p 앞섰던 것보다 더 벌어졌다.

응답자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봤다. 토론 이전보다 5%p 증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고령 우려가 토론

전보다 8%p 올라 59%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79%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토론 이후 줄었다. 토론 전엔 민주당 지지층의 52%가 후보로 남아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이후엔 48%로 줄었다.

NYT는 바이든의 나이와 예리함에 대한 의구심을 커지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의 대다수는 바이든이 81세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2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48%대 42%로 바이든에 6%p 차이로 앞섰다. 2021년 말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지난 2월엔 2%p 차였다.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맡기 부적합하다는 응답자는 60%였다.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4%였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비율은 47%였다. 28-2일 유권자 28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CBS/유거브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50%로 바이든을 2%p 차이로 앞섰다. 경합주에선 51%대 48%로 더 벌어졌다.

28-1일 실시된 1754명 대상 아후뉴스와 유거브 여론조사에선 60%가 토론 이후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지율에선 바이든과 트럼프가 동률이었다.

아후뉴스는 “바이든의 약점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지만, 트럼프에게 여전히 결점이 너무 많아 이를 완전히 활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이해원 최현호 기자

##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러중 관계, 역사상 최고”

카자흐 SCO 정상회의서 회담

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달 반 만에 다시 만났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 작용을 하는 라중 관계는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는) 평등, 상호이익, 상호 주권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구축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2030년까지의 경제협력 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상호 교역의 역학관계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SCO가 공정한 다국 세계 질서의 핵심 기둥 중 하나라면서, 중국의 내년 SCO 의장국 지위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관계의 고유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양국 협력의 내부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변화로 가득한 국제정세에 직면해 양국은 영원한 우정이라는 가치

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결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 주석은 일할 알라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삼-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도도 회동했다.

시 주석은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핵심사안과 관련해 상호 지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카자흐스탄의 브릭스(BRICS) 가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다른 SCO 회원국 정상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최현호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동화약품 SINCE 1897

### N°20 건강한 인사법



목례로 인사



악수로 오염

일러스트 양나영





☑️ 생활숙박시설

- 청약통장 유무 필요 없음
- 종합부동산세 면제
- 전매제한 없음
- 대출규제 없음(LTV,DTI규제)
- 세제혜택 1가구 2주택 해당 없음  
양도소득세 중과 해당 없음
- 개별등기 통한 보유, 매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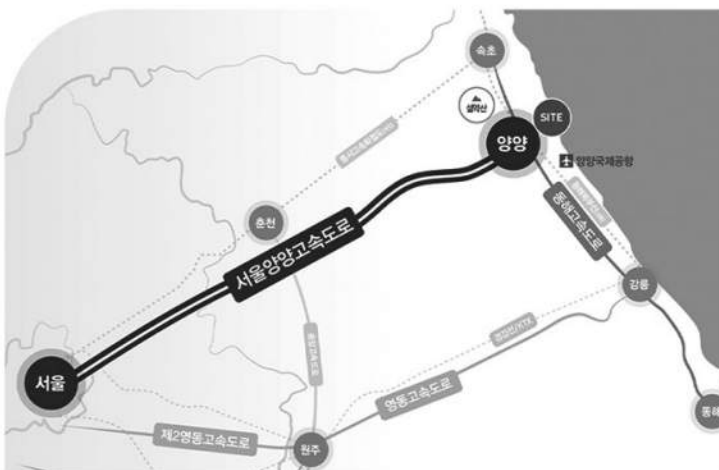
\* 상기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Wonderful Vision City

양양의 가장 높은 바다 앞에서,  
휴양의 가치도 자산의 가치도 경이로운 클래스가 됩니다

### Unique Facilities & Community

머무는 순간순간마다 색다른 경험,  
진한 감동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강남에서 약 90분 양양  
가장 가까운 동해바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27년 개통예정),  
양양 국제공항 등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바다



39F Rooftop Lounge  
파노라마 뷰를 온몸으로 느끼는  
힙플레이스 루프탑라운지



16F Infinity Pool  
동해바다와 이어진 것 같은  
감동을 전하는 인피니티 풀



3F Dining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기는 올 데이 다이닝

#### 사계절 휴양·레저의 중심 국내 최고 비전휴양도시

낙산도립공원 해제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계절 휴양·레저·관광의  
All-Round 비전휴양도시



####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 파르나스호텔-대우건설

호텔경영 30년 노하우와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 대우건설이 만났기에  
최상위 브랜드 가치의 명품 랜드마크  
호텔로 기대되는 이유



#### '서핑 성지' 양양에 인공 서핑장 조성

- '서핑 성지'로 주목받고 있는 강원도 양양에 서핑 전용 해변과 연계한 인공 서핑장이 들어설 예정(2028년)
- 개폐형 돔과 인공파도 시설을 갖춰 사계절 서핑을 즐기고 교육시설로도 활용 할 수 있는 게 특징



#### '오색케이블카'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완료!

-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대청봉 왼쪽 끝청해발 1430m 지점을 오가는 3.3km 케이블카 (2024년 착공 ~ 2026년 준공예정)
- 오색케이블카는 8인승 53대 운행예정이며, 상부정류장 등산로 2시간 거리를 약 14분 30초만에 가게 된다



유튜브에서 "생생분양톡"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마케팅 회사에서 진행하는 홍보물입니다

분양문의 **1666-1691**



# 윤석열 대통령, 총선 후 개각 본격화... 장관급 3명 교체

## 기재부 출신 중용과 방통위원장 신속 임명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장관급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며 총선 이후 개각 작업을 본격화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인선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지명된 인사는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62) 전 대전 MBC사장,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이다.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의 중용과 민주당의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대응이 두드러진다. 환경부 장관 후보와 금융위원장 후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각 부처 고유의 전문성보다는 경제 전문가를 수

장으로 선택한 점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생 경제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맞춰 환경도, 금융도 모두 경제전문가를 기용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쟁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갖고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자는 의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을 지명한 것은 야권의 잇단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전임 방통위원장 사표 수리 후 이를 만에 후임을 발표한 것은 방통위 수장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 발표 직후 첫 발언에서 전임 위원장들의 사임을 언급하며 "두 분은 어떤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방송이 이제는 공기가 아니라 흥기라고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며 "언론이,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이사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송이 모든 권력, 특히 노동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서도 "이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뒷



김완섭(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사 발표 브리핑에 임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위원 추천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

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병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또한 농촌진

흥정장에 관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 3명이 차관으로 승진 임명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와 노동부 차관에 각각 이병화 기후환경 비서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을 임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윤 대통령은 7월 중으로 일부 부처 수장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각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용국 기자

# 검찰, '검사 탄핵' 당론 발의에 강력 반발... 집단행동 가능성 제기

##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잇따라 비판 성명, 검찰개혁 과정 축적된 불만 표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검장과 지검장, 평검사들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야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쌓인 검사들의 불만이 '검사 탄핵'을 계기로 분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일 현재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서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인 요지에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들은 주로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들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전 대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과 부장검사들은 성명을 통해 "단지 말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아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등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다들 (검사 탄핵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회의를) 해야 된다는 방향도 있고 또 너무 집단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이 이미 공개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은 일단 국회 법사위 개최 여부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추후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떤 논의가 되는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



우원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를 건을 상정하던 모습. ©뉴스시스

기부지사의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관련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비위 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내부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대응 방식과 정치권과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용국 기자

#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결심... '이재명 일극체제' 견제

## 당내 민주주의 실증 우려 속 '민주당 DNA' 회복 메시지 전방

김두관 전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오전 "김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며 "곧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출마 결심 배경에는 이른바 '이재명(아저씨) 대표'은 이재명' 기류와

함께 최고위원 후보까지 진이재명계 일색으로 채워지는 당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일극체제' 속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것을 견제하고, 본연의 '민주당 DNA'를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은 이르면 전당대회 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9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전 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에 당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추대론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경남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경기 김포갑을 떠나 경남 양산읍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는 영남권 선대위원장 맡아 '낙동강 벨트'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으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한편, 당 중진 의원 등 일부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국 기자

# 민주당 내부,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 고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의 고령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패배 우려와 함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 초안이 여러 버전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선거에서의 패배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의원들은 원격으로 상황을 논의 중이다. 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모두가 패배 상태에 빠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으며, 특히 격전지 출신 의원들의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드 도트 하원의원(텍사스)에 이어 라울 그리할버 의원(애리조나)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는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주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8일 의회 복귀를 계기로 의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며칠 내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면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남윤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자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율적 수급조절** :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소비 홍보** :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 품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교육 및 정보 제공**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상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부, 올해 하반기 2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표 예정

###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 방안 제시... 서울 집값 상승세 “추세적 상승 아닐 것” 전망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현한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춘 결과,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해 이미 서울과 대구지역의 총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제개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 노력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 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HHUG가 운영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올해 하반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8개 신도시 중 초기 발표된 5곳은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올해 하반기부터 약 5800가구 가량이 분양에 들어가고, 5곳 모두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이 총 31만 가구에 달하고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인천 가정파주 운영 등에서 사전청약사업이 취소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약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토지 사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사비 갈등도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PF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12만 가구의 경우 신축 매입 7만5000가구,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전세 2만 가구를 합친 것으로 예년에 비해 굉장히 큰 목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올 하반기 내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LH 용역이 필요해 앞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아직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서울 및 수도권 가격

상승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 4만8000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장기평균 공급량이 3만8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이번 발표된 12만 가구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조금 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나래 기자

## 국민 73%,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 경험

### 심각한 스트레스 46%로 증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자식 및 태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73.6%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5.2%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했고 78.8%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단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로 전년 대비 9.7%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 생각은 8.8%에서 14.6%로,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36%에서 46.3%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경험률은 30%에서 40.2%,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 경험률은 6.4%에서 18.4%로 각각 악화됐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49.4%가 가족 및 친지, 44.2%가 정신과 의사, 41%가 친구 또는 이웃, 34.3%가 심리 또는 상담 전문가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는 66.8%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으나 정신건강복

지센터 인지도는 60.6%에서 58.1%로,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는 33.1%에서 23.3%로 감소했다.

한편 정신질환 이해도는 4.05점, 부정적 인식은 3.12점, 수용도는 3.22점 등으로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 항목별로 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에 90.5%,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에 61.4%,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에 50.7%,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에 64.6% 등이 동의했다.

조사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사례별 정신질환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주요 우울 장애는 43%, 조현병은 39.9%의 인식을 보였다. 주요 우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다고 생각한 비율은 11.9%였고 자살 사고는 12.4%, 조현병은 31.9%로 나타났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

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우서 이나래 기자

## 환자단체 1000명 거리로 “의사 집단휴진 철회하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4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0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거리에 나선 이례적인 사례로, 경찰에 신고된 참가 예정 인원은 1000명에 달해 환자단체 집회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의 갈등이 136일째를 맞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그동안 양측에 양보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여론을 앞세워 전공의들을 몰아냈고,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

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은 질병과 고통의 경험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누구도 고통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와 정부, 국회에 ▶무기한 휴진 철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및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인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재발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계 상황을 보면, 서울대병원 등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날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갔으며, 고려대 소속 병원과 충북대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환자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장기화되는 의료계 갈등 속에서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회가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 1분기 정부 순자금조달 사상 최대, 가계 여윗돈 증가

한국은행이 지난 4일 언론에 밝힌 '2024년 1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정부 부문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50조5000억원으로,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한 바 있다.

정진우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장은 “올해는 총선도 있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며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해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을 적극 지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유자금은 77조6000억원으로 직전분기보다 47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아파트 분양물량 및 건축물 순취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4분기 8만6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6만4000가구로 줄었다.

정 팀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주택거래량 감소와 연초 상여금 유입으로 조달규모가 축소됐고, 해외주가 상승 기대 등으로 비거주자 발행주식 운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6조9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유·무형 자산 투자가 줄며 순자금조달 규모가 줄었다.

국외부문의 순조달 규모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로 -26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자금순환 동향은 4월 총선을 앞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기업들의 보수적 투자 기조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이러한 자금 흐름의 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나래 기자

## 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

시청역 역주행 돌진으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법원에서 피

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전할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실제적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하 기자

동아제약

동아보감

#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아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인간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원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파키스탄 법원, 신성모독 혐의 기독교인에 사형 선고

파키스탄 법원이 지난해 펀자브주 자라왈라(Jaranwala) 시에서 대규모 무슬림 폭동을 촉발한 동일한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기독교인 예산 산 마시(28)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자라왈라 시에서는 두 명의 기독교 남성이 코란을 훼손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 주먹과 교회 불에 탔다. 이 사건은 심각한 공동체 갈등을 촉발시켰으며, 100명 이상의 무슬림 폭도가 체포되었지만,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예산 산은 자신의 틱톡(TikTok) 계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페이지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변호사인 쿠파 샤희자드는 지난 29일 사하알 법원이 내린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법률구조지원및정착센터(CLAAS-UK)에 따르면, 1일 테러방지법원의 지아울라 칸 특별판사가 발표한 판결에는 징역 22년과 벌금 100만 루피(3500달러)가 포함돼 있다.

CLAAS-UK의 이사인 나시르 사이드는 성명에서 "이는 종교적 동기에 의한 편향된 판결이다"며 "이 청년은 교회와 기독교 가정을 공격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드는 "파키스탄의 기독교 공동체는 매우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명, 재산, 예배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 판결은 오늘날 파키스탄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사실상 사망 선고를 의미한다. 한 젊은 기독교인이 자라왈라에서 발생한 폭력과 파괴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2023년 8월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자라왈라시에서 무슬림 폭동들이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최소 21개의 기독교 교회를 공격했다. ©CNN 뉴스18 유투브 캡처

산을 체포한 경찰관 아미르 파루크는 피고인이 "민감한 시기에 혐오적인 내용을 공유하여 이미 불안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산의 게시물로 인한 폭력 사태로 사상자는 없

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반면, 사하알 지역의 한 신부인 나비드 카시프는 무슬림 폭동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는 데 반해, 이번 사형 선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사하알 침례교회의 아브라함 다니엘 주교는 지역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더 큰 폭력 사태를 막았다고 말했다. 다니엘 주교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 두려움이 만연해 있으며, 산의 문맹과 인지 능력 부족을 고려할 때 그의 행동은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에 일어난 무슬림 폭동 사태로 21개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고, 상당수의 기독교인 주택들이 파괴되었으며, 1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집을 잃었다. 펀자브주 임시 총리는 피해 가정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완전한 재건은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기독교계는 주 당국에 헌법에 따른 정의와 더 나은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을 모욕하는 사람을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하

도록 명시하지만, 실제 집행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은 종종 개인적인 원한이나 돈, 재산 또는 사업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스와트 계곡에서 한 관광객이 코란 사본을 모독한 혐의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되자, 파키스탄 국회가 종교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몇 주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펀자브 주의회도 국회의 조치와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에 대한 법적 절차는 거의 소문이나 신고에 의존하지만, 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처벌 사례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보고서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미주탈북민대회 열린다

7월 12일 오후 3시에 가든스위트호텔, 탈북민 출신 티모시 조 강연 예정 탈북민 복속 반대 집회, 추모예배, 탈북민 자녀 멘토링 등 3박4일 동안 다양한 행사 준비

대한민국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지정됐다. 이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기념식과 관련 행사들을 할 수 있다.

이에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가 오는 7월 12일 오후 3시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AKUS 한미연합회, 오렌지카운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 AKUS 한미연합회 LA의 남북통일분과위원회, NKIA 탈북민 선교회, 미주 북한인권 통일연대가 주관해 열린다.

이 행사에는 알래스카, 유타, 텍사스, 워싱턴 주의 시애틀과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40여 명의 탈북민이 모여 진행되며,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시의원 도전을 하고 있는 티모시 조가 강사로 나선다. 또 탈북민 자녀 장학위원회(이사장 조선환)에서 준비한 탈북 자녀들에게 장학금 수여식도 있다. 대상은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자녀로서 10여명의 중학

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이 해당되며, 중학생은 500달러, 고등학생 이상은 1000달러가 지원된다. 주최 측은 후원자 모집을 하고 있으며, 후원자의 이름으로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다. 이는 후원자와 학생 사이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행사는 탈북민이 주가 되어 진행이 되며, 그들의 장기자랑 시간도 마련된다.

더불어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주최측은 3박 4일 동안 여러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탈북민 복속 반대 집회를 열며, 오후 3시에 미주 탈북민대회, 13일 오전 10시에 대한장외사 남광당에서 탈북을 한 후 고인이 된 이들을 위한 추모예배, 같은 날 오후에는 탈북민 자녀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한 후 우정의 종자로 피크닉을 갈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후 일정을 마치게 된다.

NKIA 탈북민 선교회 김영구 목사는 "탈북의 역사를 보면 1996년부터 지금까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미주탈북민대회 행사 준비를 위한 관계자들 기념촬영. ©토마스 맹 기자

지 30여년이 됐다. 그동안 탈북민들이 음지에 있었다고 본다. 그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티모시 조가 온다는 것이 탈북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미주 북한인권통일연대 현준삼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탈북민들에게 또 다른 815의 광복절이라 할 수 있다. 이 날이 제정이 되어 탈북민들이 한국사회 일원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문의: (미주)310-404-6219 김영구 목사 토마스 맹 기자

## 美오클라호마주 교육감, "초중고 수업에 성경 포함" 지시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최고 교육 책임자가 지난달 27일, 공립학교에서 5학년 부터 12학년까지의 수업에 성경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बै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라이언 윌터스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은 주 전역의 학교에 보낸 지침은 의무적이며 "즉각 엄격히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윌터스는 성명에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문화적 기준이다"며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오클라호마 학생들이 미국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오클라호마 교육 기준이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젠트너 드러먼드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주 법이 "이미 성경을 교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수업에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공립학교 교사인 윌터스는 2022년에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에 선출되었다. 당시 그는 공약으로 우오크 이념에 맞서며,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금지하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급진적인 좌파 이념을 몰아내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인 라이언 윌터스. ©라이언 윌터스 페이스북

교육감이 각 학교의 성경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주법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교육, 교육과정, 도서 목록, 교육 자료 및 교과서를 결정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의 오클라호마 지부장인 아담 솔타니 지부장은 성명에서 "오클라호마의 공립학교나 전국의 다른 곳에서 종교를 강제로 가르치거나, 수업 계획의 일부로 요구하는 어떤 요구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U) 회장 겸 CEO인 레이철 레이저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주 초,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종교 기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장려하고, 급진 좌파인 '우오크(woke) 이념을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루이지애나 주지사인 공화당의 제프 랜드리지는 지난달 19일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하원법안 7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까지 각 공립학교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 사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교실에 메이플라워 협약, 독립선언문, 노스웨스트 조례 등 역사적 문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다른 주들도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은 장려하는 반면, 인종,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홍보하는 교재나 수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발급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한국교회의 공공신학적 실천과제(4)



황경철 박사  
국제복음과공공신학  
연구소

##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 3. 성도 개인의 일상적 측면

목회자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 공공신학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 성도 개인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공공신학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필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실천의 내용보다는 실천의 태도와 자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유는 개개인이 처한 맥락과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례를 제시할 수는 있어도, 전체를 나열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성도가 일상에서 공공신학적 삶을 실천할 때, 기억해야 할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이 글의 취지인 '성도 개인의 측면에서 공공신학적 실천과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 1) 듣는 데서 시작하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팀 켈러는 뉴욕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성도들의 공공신학적 실천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고 서술한다.

“동네 사람들이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결핍들로 여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무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대답을 듣기 시작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반응은 자극히 만족스럽다. 백이면 백, 교회에서 찾아와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 자체를 놀라워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지 잘 안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다면, 자기 생각에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기 전에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예수님도 도움을 청하러 온 자들에게 곧바로 병 고침이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물으셨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막 10:41). 성전에서 선생들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말하기도가 아닌) 하셨다(눅 24:6). 그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이면의 내용까지 듣기 위해 물으셨다. 진정한 경청의 모본이다.

청년사역네트워크가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기독교인 79%와 비기독교인 80%가 개신교의 배타성이 높다고 답했다.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배타적 진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온유와 겸손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경청이 요구된다(벧전 3:15). 이러한 자세가 결여될 때, 기독교는 강압적이고 승리주의적인 인상을 비신자에게 남겨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할 것이다. 세상을 변화하기 전에, 상대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상대의 필요를 들어야 한다.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응시하며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들어야 한다.

### 2) 있는 데서 실천하자

비즈니스 선교사(BAM, Business As Mission)로 ‘웬즈커피’ 기업을 운영하는 진경도는 “대표님 이 비즈니스를 해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본질적 가치이고,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고객들을 섬기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 있지, 비즈니스의 결과물로 더 중요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

사람들에 따라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노동을 자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거듭난 신자가 견지해야 할 성경적 노동관은 노동(직업) 자체를 소명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칼빈의 직업소명설에 잘 드러난다.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은 소꿉 짜는 하녀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유유를 짜고 계신다”고 말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우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는 세상 일, 직장 일 조금 덜 하더라도 교회에 충성 봉사하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번 돈으로 선교나 구제를 힘쓰도록 은근히 조장하였다. 결국 노동과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고, 소명이라는 인식은 희미해지고, 주의 일과 세상일을 구분짓는 성숙 이원론을 부추겼다. 직업 자체를 이웃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훨씬 주도적이고 활발하게 공공신학적인 실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 전달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빚어가기 위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배관공은 탁월한 기술을 연마하여 막힌 곳을 뚫

고, 새는 곳을 막아서 이웃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다. 의료인들은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자신의 은사와 소명과 사명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 사안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된 현장의 종사자들을 탐방하고 인터뷰하며 다양한 공공신학적 사례들을 접할 수가 있었다. 난민을 고용한 커피숍 점주, 탈북민에게 창업교육과 지원을 돕는 단체,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돕는 스타트업 임원 등 무궁무진하다.

성도 개개인이 공공신학을 실천하기 위해 신학교를 가거나 이직할 필요는 없다. 선교지에 가야 하거나, 거창한 프로젝트, 막대한 재정을 헌금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 자신이 출근하는 회사,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현장이요, 매일 부대끼는 동료들, 그들이 복음의 공공성을 증거해야 할 이웃이다.

### 3) 균형감을 유지하자

은혜, 정의, 지혜 공공신학을 작동하게 하는 핵심가치는 은혜와 정의다. 언뜻 보기에 둘은 상호 대치되거나 모순되는 개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신비 안에서 놀랍게 통합된다. 팀 켈러는 신명기 15장을 주해하면서 거만한 자를 위한 채무탕감이나 선택적 복지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공공정책이 거만한 이들에게 너무도 관심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였다고 말한다. 즉, 정의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는 은혜라는 것이다.

그분의 너그러우심, 그리고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이야말로 정의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들의 규정과 규칙이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이 거만한 이들을 보살피시고 그분의 거룩한 법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공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구석구석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공공신학을 실천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균형적 모본을 따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인인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요 1:14). 공정과 정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은혜와 자비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역으로 풍성히 베푸는 은혜가 수혜자의 자존감을 손상하거나 자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로버트 톨슨은 서구 교회의 지혜롭게 베푸지 못한 공공신학적 호의가 어떻게 아프

리나 사람들에게 도리어 해악을 끼쳤는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난 50년 동안 1조 달러의 자선금이 아프리카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50년 전에 비하여 훨씬 나빠졌다. 기독교적 동기에서 시작된 자선이 가끔 가장 무책임한 자선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무료 급식과 무료 의복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의존도는 높였다.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나카리과 한 지도자는 “우리를 거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가장 친절하게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우리의 좋은 의도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선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이다.

톨슨의 지적을 고려할 때, 우리는 공공신학의 실천적 자세로 최소한 3가지를 고려해야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은혜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실천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 수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에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탈북자는 말한다. “돈 이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청은 신자 개인의 공공신학적 실천이 은혜와 정의에 기반하여 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 III. 나가며

2010년 이후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가 한국 신학계와 한국교회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공적 역할과 대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되었다. 표면상, 수치상으로는 기독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독교는 쇠퇴기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성숙기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논자는 한국교회의 공공신학적 실천과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목회자의 설교적 측면에서 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 드러내는 설교, ② 정의와 성화를 균형있게 강조하는 설교, ③ 성경적 종말론에 기초하여 문화명령과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설교, ④ 지시하는 설교가 아닌 공감하는 설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교회의 대사회적 측면에서는 ①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교회, ② 상식이 통하는 교회, ③ 복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교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했다. 셋째, 성도 개인의 일상적 측면에서는 ① 듣는 데서 시작하자, ② 있는 데서 실천하

자, ③ 은혜롭고, 정의롭고, 지혜롭게 실천하자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제시하였다.

이 글은 교회가 주도하는 공공신학적 사례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교회 자체만이 아니라 지자체나 NGO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기대된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공공신학”이라는 용어에 생경하며, 일각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사회 복음으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이원론적 신앙

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여 세상의 참된 소망이 되는 성경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학적 논의와 실천적 모델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올해는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의 한 축이 되었던 74엑스포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해 주어야 할지 교회는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도전 앞에 서 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끝>

## 요한계시록 공부: 라오디게아 교회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한 것과 가려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3장 17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반성하게 됩니다. 책망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게 하는 살아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책망에 이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3장 18절)

이런 책망에 이어 다음 같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3장 16절)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현대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영적 활력을 잃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3장 19절)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로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은 다음 같이 시작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3장 15절)

이런 책망에 이어 다음 같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3장 16절)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현대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영적 활력을 잃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장로 요한은 좀 더 실감나게 꾸짖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

SAMJIN 삼진제약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리딘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 오직 성경으로

안창일 교수



## 센터럴 신학 단상

필자는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마자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신학 용어들은 더더욱 생소했다. 그래도 좋은 신학교에서 잘 짜인 3년 커리큘럼의 목회학 석사(M. Div.) 과정을 통해 목회자로, 신학자로 잘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당시 학교는 목회학 석사 과정 졸업 자격요건으로서 학생들에게 성경 시험과 소요리 문답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요구하였다. 성경 시험 준비는 단시일 내에 할 수 없기에 평소 성경 내용을 계속 공부해야 했지만, 소요리 문답은 시험을 보기 며칠 전부터 108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암기해야만 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난 후 얼마 못 되어 암기했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

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에서 다른 내용과 지식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다. 졸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성경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고 교리 문답을 암기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두고 두고 필자가 성경적, 신학적, 신앙적 교리 체계의 윤곽을 배우고 정립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과 밑거름이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조를 내세웠던 것처럼,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개혁주의 교회는 모든 신학과 신앙, 그리고 교리의 근거를 성경에 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는다. 그런데 필자가 목회 현장에서 자주 느끼면서 경각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현대의 교인들이 성경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마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영적 현실이다. 의외로 많은 교인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는 듯하다. 교인들이 성경에 특별한 관심이나 열심을 갖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문제이겠지만, 목회자들 역시 성경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가르치

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훈련 과정을 통해 교인들에게서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의 빠른 효과를 보려는 경향도 그러한 영적 현실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어릴 때 등하교 길을 오가는 중에, 동네의 담벼락 곳곳에 부흥회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부흥회 포스터에 쓰여 있던 주요 문구들은 성령 충만, 치유, 은사 등과 같은 단어들이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가 부흥회 문구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처음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한국 초기 교회들의 부흥회의 일반적 표현은 “부흥 사경화”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사경화라는 말보다는 “심령 부흥회”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성령의 은사와 방언, 치유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다. 필자의 주관적인 분석이고 생각이지만, 그 뒤로는 제자 훈련 및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요즘에는 경배와 찬양 집회가 교회의 영적 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없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나 영적 문화에 밀려서 교회와 교인들이 성경 말씀 자

체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싶은 것이다. 성경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깨닫게 되어, 성경의 진리와 신학적, 교리적 올바른 위에 신앙과 삶이 견고히 서는 성도의 삶을 격려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수년 전 필자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성금요일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인 것과, 장차 성도들도 몸의 부활을 얻을 것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런데 어느 한 대학생이 자기는 그런 교리를 처음 들어본다며 놀라는 것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고, 한국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지만, 몸의 부활 교리는 너무 생소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 교리인지, 혹시 청년부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닌지, 담임목사님 필자에게 확인하러 왔었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적잖이 놀란 것은 그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필자였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학생은 이전에 수도 없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기하여 고백했었지만, 그 고백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한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성경 구절을 통해 부활에 관한 바른 교리를 그 학생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었다.

사도신경에 관하여 말이 나왔으니,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를 더 설명하면 좋겠다. (필자는 지금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다. 많은 교인은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빌라도 총독을 비난하는 불합리한 고백이라고 오해한다. 사실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던히 노력하지 않았는가!

우선, 이런 오해에는 한글 번역의 표현 선택에 그 책임이 있을 수 있겠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다는” “아래서” 혹은 “통치 아래서”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원인을 빌라도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 빌라도에 의해 대표되는 로마 법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고백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아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조를 내세운 것도 성경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된 신앙과 교리, 그리고

성도의 삶의 원리들은 모두 다 벗어 버리고자 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인도하는 대로만 신앙과 삶을 이어 나아가기로 한 결단이었고 헌신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추구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배우며/가르치며 지켜 행하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야 하겠다. 성경을 ‘달아 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펼치고서’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철저히 따져가면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히 보기를 힘써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러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원고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것입니다.

◆안창일 교수  
한국외국어대와 리폼드 신학교(Jackson, Mississippi)를 졸업하고 트리니티 신학교(Deerfield, Illinois)에서 구약학을 공부(수료)했다. 현재는 시카고 북부 서버브 Mundelein 시에 소재한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센트럴신학대학원 구약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다.

# 진리(眞理)와 자유(自由)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 ◆자유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그 본질

자유란 의지와 행동에서의 자연성을 말한다. 자연성이란 아무런 제재나, 규칙이나, 규범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말한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순수 이성비판”에서와 같이 “순수성”을 뜻한다. 조작하거나, 인위적 꾸밈이나, 타자에 의해 정체성과 주체, 형상이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있는 그 자체의 의지와, 의지에 따른 행동으로서, 철학으로 말하자면 순수성이고 자연성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자유와 그 뜻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의 형상을 불어 넣

어 주셨다 했는데, 그 형상중의 하나가 자유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인 것이다. 이 자유에는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함과, 도덕적 존엄과, 자유 그 자체를 말하는 고유의 권한이 내재해 있다. 자유란 “자유케 하시는 이(하나님)의 자유성”이다. 이것이 모든 자유의 근본이고, 모든 자유는 이것을 근원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는 책임적 자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자유권 행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넘지 않도록 하는 한계적 자유를 주셨다. 선악을 알게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책임임을 말한다. 자유권에 한계를 두신 것이다. “너 맘대로 다 해봐라”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인간 임의의 의지를 넘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을 부

과하신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이를 어졌다가 무한한 죄성의 오명을 남긴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있다.

## ◆자유 가치를 지키는 두 가지 법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것은 인간존재 의미에 대한 관찰이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이고, 인권 역시 발전하게 되므로 자신의 자유에 대한 방어 능력이 훨씬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에 대해 논할 때, 그것은 도덕 윤리적 성품과 연관된 자유라는 것이다. 자유는 아래 두 종류에 의해 제어와 판단을 받는다.

첫째, 법(法)이다. 규범적 자유라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없는 욕망에 대해 어떻게 제동을 걸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법, 규범, 규칙이다. 자유를 남발하거나 오용하면, 또는 한정된 것으로 약속한 경계선을 넘으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예를 들어 징집체제의 국가같은 경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일정기간 개인의 자유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유보되

기도 한다.

둘째, 양심(良心)이다. 초월적 자유(Meta-Freedom)의 본질이다. 양심은 자연도덕적 성품의 일종으로 인간에게 주어선 선한 정신체계를 말한다. 자유는 그 양심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법의 외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인격모독, 비하, 불편함, 불쾌감, 불안감, 불이익, 또는 정신적 손상이나 손해를 입히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유는 바로 이 양심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을 행 할 자유는 없다는 말이다.

## ◆자유 존재의 목적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나 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유를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독일 철학자들의 자유론, 루스벨트의 4가지 자유론 같은 것들이 자유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을 잘 말해 준다. 자유를 행사할 때는 생산적, 창조적, 도덕적인 것과 같은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는 행동들, 비생산, 혼란야기,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는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방종이고, 궁극적으로

적으로는 죄악에 가까운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시기를 거치면서 학문의 자유라는 말을 자주한다. 그런 가운데 학문의 자유라 하여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이나 고유의 내용을 폄하하는 주장이나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다. 신학에서 예를 들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연,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데, 그것이 아닌 진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성경해석적 자유는 올바른 자유권행사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자신을 존재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의 덕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여 마르크스주의(Marxism) 철학에 동조하거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이나 말을 하면 그 또한 올바른 자유권 행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라 하여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것으로서 가치없는 자유성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파괴하는 자유권 행사 같은 것은 하지 말

아야 한다. 인류와 역사는 이러한 선한 가치를 파괴하는 자유권행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러므로, 학문의 자유는 어떤 선한 것에 “부합한다”라는 동의를 가지고 있을 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자유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말라”(갈라디아서 5:1) 자유를 오용, 남용한 역사 파괴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한 것이다. 성경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앙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권세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아무튼, 기독교 영역 밖이라 할 지라도, 특히 학문 세계에서 자유는 항상 “무엇을 위한, 또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것에 부합되는 자유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에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이 항상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임을 망각하지 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려면?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비우스  
한인교회 담임

**[질문]**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저의 기도는 주로 감사나 간구 제목을 나열하는 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를 깊게 하기가 어렵고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 이 듭니다. 대화하면 상대의 표정 말투 어조 등 반응을 보가면서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데 기도를 혼자 주절주절하다 마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 신뢰가 부족해서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답변]** '대화(對話, conversation)란 내 말에 대해 상대가 반응하는 표정, 말투, 어조 등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서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대인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 하려니 아무래도 혼자 일방적으로 주절주절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는 신자라면 거의 다 체험하는 현상입니다. 거의 모두가 공통으로 느낀다면 사실상 기도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바깥 말해 하나님과 정말로 티키타카 식으로 직통으로 대화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아셔야 합니다.

우선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여기고 항상 신자의 곁에서 무슨 말이나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온전히

믿고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진솔하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굳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내용을 경건한 종교 용어나 형식에 맞춰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데에 묶이면 아무래도 가식적 형식적인 기도로 흐를 소지가 커집니다.

대화의 기도이므로 신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요구사항들만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직통으로 응답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부터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서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 되어져 가는 모든 여건, 상황, 사건, 인물 등을 기도했던 제목들과 면밀히 비교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아주 오래 지난 후에 어떤 방식이 되었든, 즉 신자가 기대했던 시기와 방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인정한다면 그분과 티키타카 대화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사정을 훤히 알고 이해하며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자식의 먼 장래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여서 그에 적합한 계획을 세우고 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의 요구 사항을 수정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뤄주되, 반드시 또 항상 자식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만 행합니다. 때로 자식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 아무리 졸라도 절대 그대로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자식의 한번 요구로 당장 이뤄

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줄 당기기를 하듯이 자식과 아버지의 대화가 오랫동안 지루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미숙한 자식은 미처 아버지의 뜻을 몰라 종종 의심과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세상만사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면 아버지의 숨겨진 뜻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성립하는데 기도를 끈질기게 많이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을 성경 말씀과 자기 체험에 비추어서 살펴 나가면 그분의 뜻을 더 정확히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분과 소통 창구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그분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그 응답에 설명해 드린 대로 수정 대체 포기 등도 포함됨)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또 그 다양한 방식의 응답을 잘 들으려면 기도만 해선 안 되고 성경의 진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과 그 의미에 통통해져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도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며 깊이 연구하고 또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찾고 찾으면, 나중에는 기도 중에도 종종 성령의 미세한 음성으로 응답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지 몰으셨는데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대화 하듯이 자신의 모든 소망 계획 요구 사항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다시 강조하지만, 그분의 다양한 응답 방식에 대해서 민감해지도록 영적인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기도를 주로 '주절주절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가능한 정확한 문장이 되도록(그러려면 작은 소리라도 내는 편이 좋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본인이 정확하게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서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대로 응답, 수정, 대체, 포기 등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분별해서 그분과 티키타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권능과 은혜는 어떤 방식을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 이슈도 누구에게나 통하는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자신이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 민감하게 추적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조금 몸에 익어지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금씩 알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의 기도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 社 說

### 대전퀴어축제,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전국 확산의 신호탄인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성 소수자 퀴어축제가 열리게 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가 장소 사용을 불허했음에도 퀴어조직위가 장소를 옮겨 강행하려 하자 보수단체들이 대대적인 맞불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자칫 양측 지지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대전시와 동구 등 지자체는 대전에서 처음 개최되는 성 소수자 축제가 시민 갈등을 유발할 것이란 점을 들어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달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갈등을 유발하는 축제는 반대한다"며 자체적으로 조용히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퀴어조직위는 지난 1일 대전역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일 대전역 인근 소재동 일대에서 예정대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지역 성 소수자 존재를 알리고 다양성과 포용, 해방의 가치가 대전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며 축제 당일 소재동 일대에 27개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연 뒤 거리 퍼레이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퀴어조직위가 축제 강행 의지를 밝히자 보수단체들도 인근에서 가족 시민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동성애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지에서 열린 퀴어축제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 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대전 충청권까지 동성애가 확산하도록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포스트코리아시민연대와 건강한국대전을만들어가게 범시민연대 등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퀴어조직위 기자회견이 있었던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퀴어축제가 열리는 인근인 대전시청 앞에서 건강한 가족 시민대회를 열 것임을 예고했다. 이들은 "동성애퀴어는 올바른 윤리관과 소중한 성의 의미를 해체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시민대회를 통해 동성애퀴어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사회적인 성 혁명 교육, 가짜 차별금지법, 청소년 조기 성애화, 청소년 마약 중독,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퀴어 행사 확산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전 퀴어축제 반대 집회는 가족 중심, 생명존중, 문화축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동성애퀴어가 건 강한 가족 해체에 목표가 있는 만큼 가족 중심의 건 강한 사회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퀴어문화축제축이 행사 장소로 소재동으로 옮김에 따라 가족 시민대회도 당초 대전시청 앞 보라

매광장에서 퀴어축제 인근 장소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 번수다. 대전 경찰은 퀴어축제 측과 반대 집회 측 모두 집회의 자유가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퀴어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측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퀴어축제 개최에 반대에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대전시와 대전 동구는 퀴어조직위 측이 장소를 변경해 행사 진행을 강행하자 시설물 설치할 막는 등의 행정력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집시법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인데 지자체가 아랫다저했다 입장을 바꾸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행사에 대한 시민 불안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전시와 대전동구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하게 된 건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대구시가 방해했다며 퀴어조직위 측이 제기한 소송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퀴어조직위가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구시와 흥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퀴어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구퀴어조직위는 지난해 6월 대구시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흥준표 시장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막는 바람에 양측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월 "대구시가 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대구시의 사례가 대전시로 하여금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란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집시법의 의한 집회라고 그 성격이 공공성을 띠었는가 중요하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공성을 해치는 집회를 행정력이 눈 뜨고 방관하는 건 더 많은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이슈를 놓고 찬반이 있는 건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공산주의 사회라면 그런 논리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를 일반적인 이슈의 범주로 여기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기존 질서 타파, 해체, 혁명 이데올로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해체 혁명을 시도하는 이들의 광란에 가까운 불기를 단지 집시법의 범주로 판단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대한민국을 성혁명 공화국에 빠져들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동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신나는 여름 방학, 특별한 체험 '2024 어린이 한옥캠프'

서울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는 여름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7월 20일(토)부터 8월 10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 (2024 어린이 한옥캠프)를 진행한다.

작년에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어린이 한옥캠프)는 올해 '지락소(知樂所)'알아보고 즐겨보는 곳(한옥)을 주제로 해설체험교육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계동 근대 한옥에 대해 알아보는 해설을 시작으로 전통 소목교실 소목교실과 우리 소리를 배우는 전통문화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1교시에는 북촌문화센터의 문화해설사와 함께 100년 역사를 지닌 계동(桂洞) 근대 한옥의 전통 건축양식과 옛 생활문화를 함께 살펴본다. 자연과 삶의 조화가 담긴 고즈넉한 대청마루와 건넌방안방사랑채마당 등에서 소중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선비의 방을 지어 한 사랑방에서 해설과 함께 이해를 돕는

퀴즈로 배운 내용을 재미있게 습득해 볼 수 있다.

2교시에는 사랑방 필수품인 '경상(經床)'을 직접 만들어 본다. 옛 선비들이 서책이나 경전을 읽을 때 사용하던 책상인 경상은 사랑방에서 손님을 마주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촌목공예공방의 신민웅 강사와 함께 특별 교구로 제작한 풀잎이 살아있는 작은 경상을 만들어 보며, 전통 소목 공예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옥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쪽에 준비한 탁족(濯足) 놀이와 전통 음료, 다과 등을 즐기며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쉬는 시간도 마련했다. 달콤한 휴식 뒤에는 선비와 함께 큰 사랑방에 둘러앉아 가곡과 가사시조를 아우르는 우리 고유의 소리인 '정가'를 조난훈 가객과 함께 따라 부르며, 여름 한옥의 높은 기품을 체득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올해에는 종로구가족센터와 협력해 관내 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

한 특별 회차를 마련했다. 더불어 특수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인원을 책정하는 등 한옥문화체험에 대한 수요를 다층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어린이 한옥캠프)가 어린이 누구나 도심 속 친환경 공간에서 무더위를 피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꿈꾸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 어린이 한옥캠프)는 4일(목) 오후 2시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 또는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02-741-1033)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공공한옥이 모두와 동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장소에서 어린이들이 협동과 기쁨을 나누는 자세를 배우며, 우리 전통 한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뜻깊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성은 기자



©서울시청

# 서울시민대학, 여름 계절학기 무료강좌 65개 개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민대학 계절학기를 통해 올여름, 한 달간 6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1900여 명의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구종원)은 오는 7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민대학 '2024년 계절학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은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계절학기는 총 65개의 무료 강좌를 시민 누구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서울시민대학은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총 3개 학습장에서 연간 4학기 제로 운영되며, 올해 교육과정은 특별학기(2-3월), 1학기(4-6월), 계절학기(7-8월), 2학기(9-12월)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절학기에는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테크 전략 강좌부터 전 세대가 참여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캠프까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강좌가 폭넓게 마련되었다.

또한, 동남권 캠퍼스에서는 광복절 79주년을 기념하는 특강이 열리고, 모두의학교 캠퍼스에서는 오페라 감상법 강좌가 진행되며, 경제, 역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개인의 다양한 흥미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권 캠퍼스(종로구 송월길 52)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북촌과 서촌의 오페라 역사와 이야기를 문화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강좌와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통찰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 보는 강좌 등이 열린다.

동남권 캠퍼스(강동구 고덕로 399)에서는 우리나라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광복절 79주년 기념 특강과 서강대학교와 함께하는 초등학생 4-6학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가족캠프 등이 열린다.

모두의학교 캠퍼스(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에는 나라별 오페라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미니 콘서



©서울시청

트를 통해 오페라를 감상해 보는 강좌, 생텍쥐페리의 문장을 통해 그가 인생의 사막에서 발견했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강좌 등이 마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연계 특강 프로그램인 '온비드 공모로 토지, 국공유 재산 등 낙찰받기는 전체 강좌 중 유일하게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민대학은 학위 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도 운영한다. 이번 계절학기 기간에 서울의 건축문화사, 박물관과 문화유산, 한국민중생활사 3개 과정을 동시에 수강한다. 7월부터 11월까지 15주간 진행되며, 계절학과 마찬가지로 7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학점은행제과정은 중부권캠퍼스에서 진행하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서울시민대학의 계절학기 프로그램과 학점은행제 과정의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강좌별 일정 등 세부 정보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이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본부장은 "이번 계절학기 프로그램은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교양 분야의 강좌를 준비했다"며, "더운 여름에도 학습과 성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배움을 일구는 시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다는 기자

# C형 간염 등 국가검진 항목 확대, 국민 건강 보장권 향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수)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과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였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C

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하여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하였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작

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검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우리 기자

## 믿음과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술개발 및 시공 품질관리로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성누리건설 주식회사**  
SUNGNURI CONSTRUCTION Co., Ltd

대표이사 전 용 건

경기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4-21 T. 031-392-0812-3

영남사무실 경상북도 안동시 복순원로 354-12 201호 T. 054-857-9274

호남사무실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230-11 T. 061-653-3292

Email: snr0812@naver.com



##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자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건.
- 5.토지: 2,756m<sup>2</sup>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품으로 은퇴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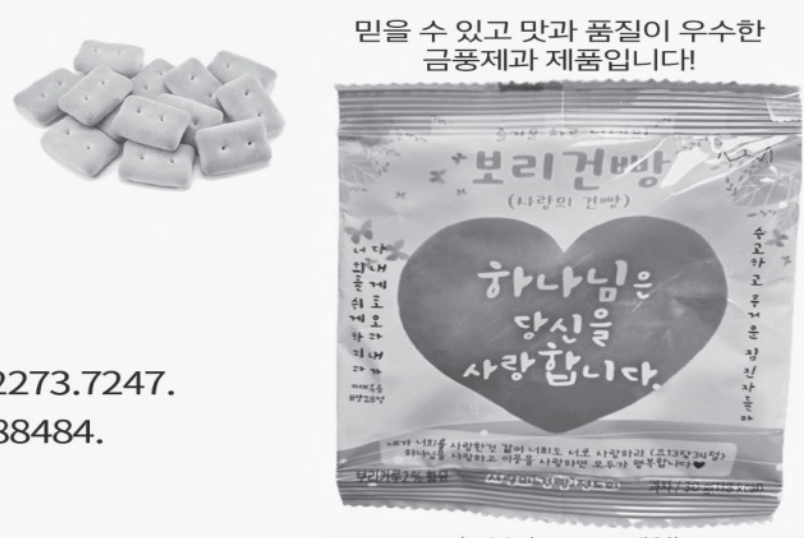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품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 부흥회 특징 ]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장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목회교회 담임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동부총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 네이버검색 인천이룸교회하나님병원 기독교신문뉴스 이명호목사간증

매일오후1시집회  
한국에없는사역입니다  
악한영결박처리할능력  
이목사에게만 임하였음  
어떤병도낫습니다

최모산 목사

유튜브검색 ▶ 인천이룸교회간증  
통변 음성 영안투시 능력사모하는분 와보라  
만수역1번출구앞 사역자공격당함 제거  
전화상담치유 010-5612-4220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과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made in NORWAY

##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SELOLIFE Nornature Contains DPA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십대 부모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우리에게는 두 명의 십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말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미나에 참석한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한 말이다. 십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사랑한다(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도 고통스럽다. 십대 자녀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방향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에 부모에게 쏟아내는 말들과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십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를 위기라고 보고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뛰어난 성경 상담학자인 폴 트립의 생각은 다르다. 네 아이가 장성하게 자랄 때까지 양육한 경험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십대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한다.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는 1997년에 폴 트립이 쓴 책으로 2004년에 디모데 출판사를 통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2001년과 2022년 개정된 이 책은 다시 디모데 출판사를 통하여 2024년 개정판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 책의 부제는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힌다. 이 책은 “변화의 시기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청소년 양육 & 상담 가이드”이다. 십대의 시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성숙해지는 것/겨룩해지

는 것이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엢 6:4), 자녀와 나누는 모든 관계의 기회를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십대와 부모”에서는 십대를 양육하는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이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그들의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을 피하고 존경과 보답을 요구하거나 성공과 통제를 추구하는 부모의 우상숭배 문제라고 밝힌다. 트립은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정의와 역할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신 방법과 그 순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동체이다. 폴 트립은 1부의 마지막 장에서 십대 자녀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들은 지혜와 정계에 무관심하고 친구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성경 유희에 취약하고 마음의 문제에 둔감하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데 무감각하다. 자, 이런 특징을 갖는 십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폴 트립은 먼저 자녀 양육의 목표를 바르게 세울 것을 제안한다. 부모가 추구하는 우상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 자신의 은혜를 추구하라고 말한다. 부모는 자녀를 둘러싼 세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별히 십대를 훈육할 때는 어린 자녀를 대하듯 통제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진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부모는 또한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고 경계해야 한다. 세속적인 사상은 생

각보다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갖는 것이다. 자녀가 요청하거나 부모가 그 필요를 발견할 때,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부모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녀의 말을 인내심 있게 경청하며 그들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자녀는 곧 집을 떠나기 마련이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그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양육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는 실제로 매트 찬들러와 J. D. 그리아가 십대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유익을 끼친 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녀양육 전문가의 발언이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을 갖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 상담 가이드에서 우리는 아이가 죄를 깨닫게 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돕는 기준도 없다. 철저히 인본주의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개인의 욕구와 바람을 중심에 둔 조인과 치료만 있을 뿐이다. 세속적인 자녀양육은 복음이 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 아이의 인권과 요구를 소중히 여기고 민감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런 실정에 그리스도인 부모가 특별히 십대 자녀를 양육할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오랜 세월 많은 기독교 가정에 유익을 끼친 이 책이 담고 있는 복음적인 원리와 실천을 통하여 많은 부모(혹은 예비 부모)가 겪고 있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를 소망한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행교회

### 7월, 작가들의 말말말



잠재능력개발 후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적극적으로 외웠다. 성경에는 힘이 되는 구절들이 많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좋은 성경 구절을 읽으며 새 힘을 얻었다. 설교를 듣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을 얻는 데 상당히 좋았다. 그 당시 큰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교인들을 많이 했다. 따라서 다른 교회들도 그런 비슷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었다. 노래, 책, 성경, 설교 등 모든 것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예수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기에 후회도 아쉬움도 없다.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때의 일과 사건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기에 좋았던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감사하다. 긍정적인 말로 나를 세우준 김인현 변호사에게 특별히 감사사를 전한다. 더불어 나와 인연이 있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다는 말을 바친다. 김현옥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하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는 도저히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일종의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게 도박을 할 경우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밀전을 거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말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밀전을 들인 것이 아니므로 결국 밀재야 본인인 셈인데,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쪽에 걸었다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신이 존재하는 쪽에 거는 것이 확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이른바 그의 유명한 도박 논증(Wager argument)이다.

하원 '하나님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미디어로 주시는 메시지'



내가 의지가 강해서, 또는 특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반복해서 절망감에 휩싸이고 넘어진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강력한 소망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 내게는 잠시 넘어졌을지언정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다. 나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셨다. 담당 교수님은 나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이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는 바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단 한 가지이다.

김소민 '여기, 저 살아있어요'

### 신간

##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는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기독교의 핵심 주제들을 흥미롭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변중서다. 이 책은 저자 라원기 목사(별처럼 빛나는 교회 담임)가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나왔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오다 이번에 개정판으로 나오게 되었다.



책의 내용은 종교의 필요성과 성경의 진리성,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유일성과 부활에 관한 확신 등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섣달 대답하기 힘든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탄탄한 논리적 기초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 의미를 가

질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도서관에서 서적들을 지키면서도 그것들을 읽을 줄 모르는 개와도 같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하는데 인생의 의미는 전혀 모르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신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을 구도(求道)라 하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계시(啓示)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취하는 방법이 구도의 방법이다. 열심히 신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법은 계시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KBS 전 아나운서 신은경 “우린 모두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잡언은 히브리어로 마살(Mashal), 속담-격언-금언-비유란 뜻이다. 삶의 지혜를 짚고 비유적인 문장 안에 담은 솔로몬의 시가서를 의미한다.

책 '잡언 읽고 잡언 쓰자'는 성경 본문과 31편의 목상 에세이가 담겨 성경을 필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과거 KBS 아나운서였던 신은경이 한 가정의 딸, 아나운서교수 등 직장인, 배우자,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책에 담긴 QR코드를 찍어 잡언 낭송을 함께 들으며 필사한다면 한 달 동안 잡언을 운문으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우린 모두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가 흙이 좀 묻

을 수 있어요. 부모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고, 또 살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요. 몸이 몹시 아플 수도 있고, 남들과 달리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학교, 직장, 선거, 모든 도전에 거절당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불합격이, 낙방이, 낙선이 실패만은 아니라고요. 당선이나 합격이 반드시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184쪽) 조수원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경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 날 새를 함께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이야기 (7)

8. 은혜 체험 후의 변화된 모습들  
회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종종 종교적인 이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설교가 새롭게 들린다. 성경이 새로운 책인 것 같다. 거기가 새로운 빛을 보기 때문이었다. 이를 테면,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같은 이야기에 대해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이제야 비로써 그것을 실재적인 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사랑에 대한 목상을 하느라고 몰두한다. 어떤 이들은 부모와 세상 전부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고백했다. 어떤 이들은 가련하고 비참하며 무가치한 존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인식에 압도당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 이들이 과거에는 모두 너무나 냉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처럼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식으로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온유와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 그들은 대개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 재 속에 처하고 싶어 하는 소망을 표현했다. 그들이 진토

속에서 낮아져 자신을 비웠을 때 어떤 것보다 비길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발견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켰을 때 그들은 만족스러운 안식을 가장 많이 즐겼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성경만큼 즐거워할 책은 없었다. 그리고 주말만큼 귀히 여김을 받는 시간도 없었다. 예배당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곳도 없었다. 회심자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그들에게 가장 불친절했던 사람들에 대해 그라해한. 사람들은 남에게 끼친 해악을 고백하고 보상하는 데 열심이었다. 회심자들은 다른 영혼들의 회심에 대해 지극한 소원을 가졌다. 어떤 이들은 가장 미미한 동료 인간이나 가장 약한 원수들의 회심을 위해 자기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9. 회심된 자들에게 남아있는 부패  
이처럼 놀라운 영적 변화와 감격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심된 자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해서 자기 점검이 불필요할 정도였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에드워즈는 기록한다. 회심된 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두려움과 의심을 가진 가장 큰 원인은 그들 마음 속



에 남아있는 너무나 많은 부패 때문이었다. 처음 은혜를 체험할 때 온통 생기로 가득했던 영혼이 차츰 둔감한 상태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교만, 시기, 원한, 복수심 등 아직 자신들 속에 남아있는 세속적 성향을 발견할 때 그들의 마음은 실망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의 체험이 모두 헛것이며 자기들은 위선자일 뿐이라고 결론 짓게 한다. 그들은 자기의 강박하고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 울부짖

는다. 그러나 성령의 영향이 회복되어 은혜의 활발한 움직임이 되살아나면 의심과 두려움은 곧 사라졌다.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과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수단은 종종 종교적 대화였다고 에드워즈는 말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영혼이 넘치는 기쁨으로 거룩한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10. 에드워즈 교회의 부흥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  
이러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진행되

고 있을 때 노샘프턴 교회 신자들과 에드워즈는 외부의 오해도 많이 받았다. 그는 뉴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들이 노샘프턴을 비롯한 코네티컷 골짜기 부흥에 대해 비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 부흥에 대해 시기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불평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퀘이커 교도들과 유사하다고 비난했고, 어떤 경우에는 중말론과 관련해 오해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노샘프턴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영적 체

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에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그것은 에드워즈의 변명에 의하면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의 결과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 일에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문제를 대화의 소재로 삼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진술하는 이 역사가 과거의 부흥들의 연장선 상에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부흥은 자신의 전임자인 스토타드의 목회 아래에서도 몇 번 일어났다. 그때 역사했던 것과 동일한 영이 이번에도 역사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의 비범성 뿐이라는 것이었다. "전에 회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소나기에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의 갱신시키고 강화하고 세워주시는 영향을 받았다(And God's people that were formerly converted, have now partook of the same shower of divine blessing in the renewing, strengthening, edifying influences of the Spirit of God)"(96).

<계속>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이야기  
작성자 orangk

## 성경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치르신 대가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1:9).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6:8장에 나와 있듯)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뒹굴며 아직도 죄의 종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여전히 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며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에레미야 31:34). 이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유로 죄의 사실을 망각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문제 삼지 않기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죄가 떠오르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기로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르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8).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놀라움을 상기하는 것과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 쉽게 해준다는 면에서만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18:21-35).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옛 죄를 잊기가 싫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과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예전의 죄를 떠올리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죄이며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의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마태복음 5:28).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죄지었던 경험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일어나면 죄/죄책/죄/죄책이라는 고리는 많은 피해를 끼치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면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도 더 쉬워집니다(마태복음 7:1-5; 디모데전서 1:5). 용서는 그럴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분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구세주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5:10; 사면 103:2-3, 10-14).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하시지만 (사탄은 악한 목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그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다음에 옛 죄가 떠오를 때면 "다른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무는 것을 택하시고(찬미를 권면하는 성경 구절 목록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혐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퀘스천스 제공

Psalm 112:5 NIV  
Good will come to those who are generous and lend freely, who conduct their affairs with justice.

- lend: 빌려주다
- freely: 기꺼이
-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 affair: 업무, 일
- with justice: 공정하게, 정당하게

- good: 도움, 소용  
- come: (어떤 일이) 찾아오다, 일어나다  
- generous: 너그러운, 후한

사면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완전해질 것이다.

---

Proverbs 3:7 NIV  
Do not be wise in your own eyes; fear the Lord and shun evil.

- shun: 피하다

잠언 3장 7절  
너 자신의 관점에서 자हे를 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피하라.

- in your own eyes : 너 자신의 관점에서  
- fear : 경외(敬畏)하다, 공경하면 카카오톡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제약 전속모델

##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청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선착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화 정성, 광동 쌍회진 30회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04)

#### 로마서 8장 34절

34. Who is he that condemns? Christ Jesus, who died—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Who is he that condemns? :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Christ Jesus :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 who died—more than that : 죽은 실뿐 아니라

; who was raised to life-- : 다시 살아나신 이는

·is at the right hand of God :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중요한 단어, 속어

intercede : 중재하다, 간구하다. condemn : 정죄하다, 비난하다.

--more than that : 그것보다 더, 여기서 "that"는 who died를 받음.

따라서 상론해 보면

Christ Jesus, who died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more than that : '죽으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죽으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이"입니다. : who was raised to life--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자가 직면하는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귀에 대해 마치 스가랴 3장에 서처럼 오히려 책망하시고 당신을 지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데 반하여 마귀는 우리를 가로막으려 우리의 오른편에서 있다.

#### 스가랴 31-5

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

이시니라 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때에 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시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5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고 여호와와 사자는 곁에 섰더라 1 Then he showed me Joshua the high priest standing before the angel of the LORD, and Satan standing at his right side to accuse him. 2 The LORD said to Satan, "The LORD rebuke you, Satan! The LORD, who has chosen Jerusalem, rebuke you! Is not this man a burning stick snatched from the fire?" 3 Now Joshua was dressed in filthy clothes as he stood before the angel. 4 The angel said to those who were standing before him, "Take off his filthy clothes." Then he said to Joshua, "See, I have taken away your sin, and I will put rich garments on you." 5 Then I said,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So they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and clothed him, while the angel of the LORD stood by.

#### 히브리서 7:22-25

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라 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으로 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25 그러므로 자기를 함입하여 하 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22 Because of this oath, Jesus has become the guarantee of a better covenant. 23 Now there have been many of those priests, since death prevented them from continuing in office; 24 but because Jesus lives forever, he has a permanent priesthood. 25 Therefore

he is able to save completely those who come to God through him, because he always lives to intercede for them.

#### ▶해석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로마서 8장 35절

35.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Shall trouble or : 환난이나

·hardship or : 곤고나

·persecution or : 핍박이나

·famine or : 기근이나

·nakedness or : 적신이나

·danger or : 위험이나

·sword? : 칼이라

#### ▶중요한 단어, 속어

nakedness : 적나라, 벌거숭이, 노출, 결핍. separate A from B : A를 B에서 떼어놓다. //Raw meat must be kept separate from cooked meat. : 생고기는 익힌 고기와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The school is housed in two separate buildings. : 그 학교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두 채의 건물을 쓴다. //South America separated from Africa 200 million years ago. : 남아메리카는 2억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갔다. //Those suffering from infectious diseases were separated from the other patients. : 전염병을 앓는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과 격리되었다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의 생략된 문장을 다시 쓰면 (Who shall separate us from 생략)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 ▶해석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the love of Christ)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가 없을뿐더러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있는 자들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음을 당할 사람은 없다. "환난"이 그럴 수 있는가? 어렵도 없다. "곤경"이 그럴 수 있겠는가? 어렵도 없다. "박해"가 이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는 없다. "기근이나 할벗음"이 역시 어렵도 없다. "위험, 칼"이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

#### 고린도후서 5:14-17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14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15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16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so no longer.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 ▶해석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백판기 목사(예수사랑교회)

### 건강상식

##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척추가 고통 받는다

추간판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튀어 나와 요통과 하지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심한 외상에 의한 경우,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와 복부근육이 약해져 추간판이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를 취한 하중이 요추에 실렸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세는 주로 요통이지만 범위가 넓고 불확실하다. 기침, 재채기, 배변, 구부리는 동작,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눕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통증은 사라진다.

또 좌골 신경통이 일어나 근력이 약해져 발을 들거나 똑바로 서 있거나 걸기가 어렵다. 환자는 무의식중에 신경을 자극시키지 않는 자세를 하려고 하게 되어 허리가 휘고 자세가 뒤틀어지게 된다.

직장남성 Y씨(54)는 허리 통증으로 본원을 찾아 검진 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았다. 척추가 휘고 골반이 비틀

어진 것이 원인이었고,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으로 병이 발생되었다. Y씨는 척추골반 교정, PRP, 자기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여 종전의 단일 치료보다 치료의 효과를 더욱 올릴 수가 있었다.

척추 교정치료는 척추관절의 잘못으로 인한 척추와 골반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잡아주어 신경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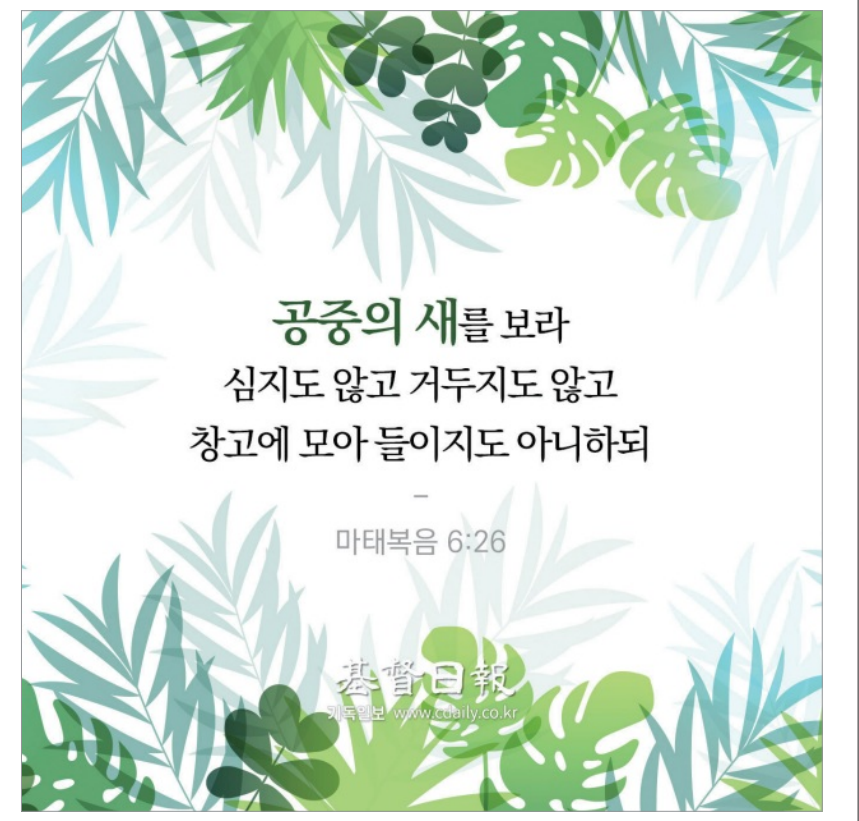
PRP 치료는 본인의 혈액에서 채취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성장인자로 구성되어 인대강화, 근육강화에 효력이 좋다.

또 자기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이나 근육에 면역 억제작용을 하여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므로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필자는 국제세포과학회 한국지회장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20대 초반부터 발생하여 30~40대에 많이 나타나 올바른 자세와 허리 강화운동이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요통과 튼튼한 허리 근육은 서로 반비례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조언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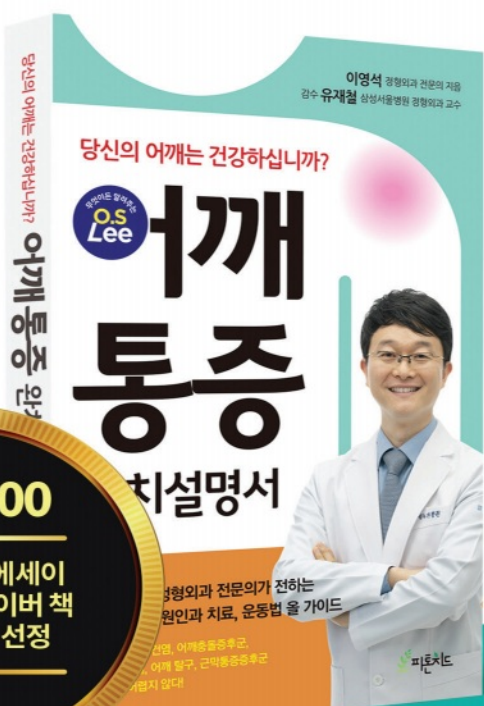
박재우 의학박사

### 은혜 한 장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향유육합 사랑 없는 목사의 변

“목사님,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왜 노숙인들에게 야단을 치십니까? 이 소리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마디 한다. 사랑 많으시면 모셔다가 같이 살아보시지요.”

정말 나는 사랑이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을 돌보는가?  
20년쯤 전, 주님은 교수 의사 화가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에 단 하루만에 150명이 넘는 노숙인들을 몰아 보내셨다.

예수 사랑 깨닫고 배우라는 것이다!  
당시 사스가 유행하여 노약자들이 죽어나가자, 그분들을 돕던 단체가 문을 닫았다.

우리 교회로 물려온 것이다.  
몇 사람만 오셔도 썩은 내가 가득 찼다. 나도 처음엔 야단치기 보다 눈물 흘리기를 더했다.

그런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식구로 살아봐라.  
지금도 나는 제일 힘든 것이 있다. 가진 것 다 팔아서 주려고 해도 별 것 아니다.  
팔 것도 없으니 하는 소리가 아니다.

제일 힘든 것은 급히 째째 소리내면서 거지(?)처럼 먹는 것이다.  
“반듯하게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야지요!”

큰소리한다.  
“한번에 너무 급히 많이 들지 마세요. 속 버려요! 절대 술 담배 먹지 마요! 암 걸려 죽어요! 목사가 교인 현금 거둬다가 술값 담배값 대줄 수야 없죠!”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어떤 이는 공동체에 같이 살다가 드나들기를 반복한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거기 가니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이리던 이가 지난 달 2년 여 자립자활의 시간을 보내다가 고향으로 길을 떠났다.

예배 중에 그가 한 고백이다.  
“저는 노숙했던 OO입니다. 술에 의지



출국하기 위하여 출국 조사를 받고, 탑승 수속을 받다.

하다가 마음과 몸이 망가졌습니다. 지친 마음과 고된 생활을 달래려고,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간도 다 상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님을 만나, 평창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회개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건강도 회복하였습니다.

작년 성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석우 치과 장로님께서 틀니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사정을 딱히 여긴 목사님과, 공동체 식구들이 도움을 주셔서 합법적으로 여권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자진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보고싶은 딸과 가족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중략) 저의 과거처럼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고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소중한 마음과 사랑,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 벨 때까지 인병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그는 2년 여, 함께 살면서 웃고 우는 이야기를 지어갔다.

어느 때엔, 자립자활금으로 몽땅 술을 마시고, 간이 망가져 행려병자 처지가 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 회개와 노동의 시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기 시작했다. 그러자 멸시와 천대의 시간도 이겨냈다.

모든 이들이 “되겠느냐?”는 부정확증의 저주 같은 낙담도 부숴버리고, 가족들과도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갔다.

마침내 우리는 불법체류 문제도 해결하고, 자립자활 저축금 외에 보너스를 보냈다.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길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자립자활을 위하여 땀 흘려 수확한 콩을 엄선하여 선물로 드렸다.

떠나던 전날엔 교우들이 찾아가 선물



자립자활을 위하여 마련된 평창 산마루 사랑의 농장, 콩 재배와 수확



틀니를 해준 이석우 치과를 찾아가 선물을 드리다.

과 돈봉투를 전하였다.

그는 선물을 감사히 받았으나, 돈봉투는 극구 사양하였다.

더 이상은 노숙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로 길을 떠난 것이다.

출국하며 돌아다보는 그의 표정은 평안함과 이별의 아쉬움 속에 눈빛은 맑고 얼굴은 환하게 빛 났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그를 사랑한 성도들이 고맙기만 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 대화입니다.

### 성경상식

## 두 강도

[two thieves]

최후의 선택

예수가 처형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셋이 나온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강도’라는 말이 실은 혁명가를 뜻한다고 말한다.

즉 그들은 단순한 강도질 때문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강도 한 명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은 조롱일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최후의 외침일 수도 있으며, 둘 다일 수도 있다) 다른 강도는 예수에게 더 동정적이었다.

그는 앞의 강도에게, 우리 둘은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는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의 대답은 잘 알려져 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39, 43).

전도사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를 즐겨 써먹었다. 아무리 뒤늦게 회개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무척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일부러 회개를 늦추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최후의 순간에 구원을 받았듯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회개하면 만나 오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성서에는 그 강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가 천국을 약속했던 강도는 ‘디스마이오’ 예수를 조롱한 강도는 ‘게스다라고’ 한다. 소설과 영화에서 두 사람은 보통 그 이름으로 등장한다.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까마귀가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눈을 쪼아 먹는 끔찍한 장면이 나온다. 틀넥 출판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찬송하는 자의 고백

## 찬양심(讚揚心), 귀로 듣는 영(靈)



이선종 목사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시 148:5)  
(번역) 여호와 그 높은 이름을 찬양함시다.

왜냐하면 그가 명령하셨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의역하면, “창조물들은 스스로 주를 찬양하도록 지어졌으니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명령하셨

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졌고 또 주가 명하셔서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두심으로 우리는 불가불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기쁨의 존재다. 창조자의 사랑 안에서, 그의 존재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어떻게 보면 창조자의 의지 안에 있는 제한된 존재 같으나 그 창조자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무한한 사랑 안에 심지어 그를 기억할 자유마저 주셨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요람의 안락함과 능력과 신령함이 있다. 때문에 피조자는 그의 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동의 존재가 된다. 우리는 그의 크신 능력에 놀라는 존재

다. 이런 긴 설명 뒤에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은 찬양하는 존재라는 뜻에는 ‘관계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 찬양은 아무 것도 모르고 숭배하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반응하는 존재다. 즉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신령과 능력과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반응으로 큰 기쁨의 관계에 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꿰뚫어 봄으로써 그분의 신령함과 능력을 알 수 있다. 찬양하는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존재이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맞본다. 스스로 찬양함으로만이 나의 존재를 주 앞에 던져 놓을 수 있다. 주는 나의 영원한 친구요 하나님이고 나의 주시다.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주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신령한 존재 방식이다. 주께서 이를 아시고 주를 찬양하는 자로 만드셔서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셨다. 우리는 찬양하는 자연적 존재로서 있는 한 자연스럽게 주님은 우리의 갈 길과 할 일과 높은 뜻을 가르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기르신다.

정말 우리가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도록 우리 안에 인자가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명령된 주의 인자에 대해 이렇게 불러보자. ‘찬양심’ 찬양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신령과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여 내 안에 생긴 것을 밖으로 목소리를 통하여 토하는 것이요, 그 소리는 귀로 듣는 영이다. 자신의 안에 숨은 찬양심을 불려 스스로 귀로 듣고 하늘의 영을 내 안팎에서 소통함으로써 찬양심은 우리의 삶을 주 안에 그리고 주의 인자를 살려내는 자연스러운 삶이 된다. 주님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녹아 역동하고 있는 신령한 찬양심을 일으켜 주옵소서.

◆ 이선종 찬양 예배자 시편 번역, 스가라 번역, 찬양곡 번역, PTSA Th.m 수료, KPCA M.div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cm 서울대 졸업.

## 찬양의 사람들 3

이샤야 / 왕의 통치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 선지자들의 통치이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일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종종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지자들은 왕의 영적 자문관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샤야는 왕의 개인 교사였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한 세대를 위한 지침이 되기도 했다.



저드슨 콘월

이샤야의 글은 찬양으로 가득하다. 이샤야는 처음으로 천국을 보았으며 거룩한 찬양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찬양의 표현과 함께 찬양 가운데 탄생한 직권을 위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샤야 12장은 찬양장이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

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라고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사 12:1-6)

이샤야 25장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라고 전하며, 35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한 화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이다.”

또한 이샤야 42장 10절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며 탄원하고 있으며,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하박국 / 모든 소 선지서는 어느 정도의 찬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띄는데,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비판하며 “어느 때까지”(1:2), “어찌하여”(1:3,13) 그렇게 행하시는지 묻는 질문으로 하박국서를 시작한

다. 하박국은 불안한 믿음의 끝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기도의 땅대로 간다. 그는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라”(2:20)고 말하며 2장을 마친다.

3장은 목소리로 하는 찬양의 전형이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3:3)라는 선포로 시작하며, “나는 여호와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3:18-19)라고 말하며 마친다.

하나님에 대하여 비난하기를 좋아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앞제 안에 거하면서 찬양의 선포자가 되었다.

예수 / 신약에서는 찬양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다. 마리아는 자신이 수태한 것을 확인하자 위대한 찬양을 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소식을 전했다. 아기 예수님을 본 목동들은 놀라움과 찬양으로 이를 지켜 보았다.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올려드렸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찬양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것,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 즉 탄생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것은 찬양을 받으셨다!

바울 / 대부분을 교회 치리에 관해 썼던 디도서를 제외하고, 바울이 쓴 신약의 모든 책은 찬양의 표현을 담고 있다. 바울은 노래로 찬양하며, 찬양을 기뻐할 것 그리고 감사의 찬양과 찬양의 제사를 요구했으며 그리고 손을 들어 찬양하도록 했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통과 박해 가운데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의 찬양에 대한 철학의 모본을 보여주었다(행 16:25). 바울은 찬양에 대해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요한 /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찬양을 이해했다는 사실은 역사 기록자로서 쓴 책이 아닌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자로서 쓴 책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무리로 가득하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내는 풍성한 찬양과 찬미에 정신을 빼기지 않고 이 ‘마지막’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성경을 훑은 것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다. 다만 다윗과 그가 기록한 시편 외에도 찬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일하시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생겨났으며, 현재 성령을 통해 일하시므로 교회가 찬양에 대해 다시 깨어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 저드슨 콘월

Judson Cornwall, 1924-2005,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모든 영역에 탁월하게 적용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매우 존경받는 선생이자 작가이다. 30년간은 개교회의 목사로, 12년간은 여러 집회와 사경회 등의 강사로 세계 각처를 여행하는 등 거의 50여 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다. 그는 평생의 사역기간 동안 50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이 중 많은 책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기독교 잡지와 정기간행물 등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 ◆ 이샤야 율린이

성신여자대학교와 한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SDS 등에서 인하우스 번역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프리랜서 전문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 찬양한표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너를 선택한다. 김브라이언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송정미와 함께하는 'Here and Now WORSHIP'



10여 년 전, 백주년 기념 교회에서 수요 저녁 예배로 드렸던 '송정미와 함께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찬양 리바이벌'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CCM 가수 송정미와 뮤지션들이 모였다.

주최 측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이때, 한 달에 한 번 모여 찬송가를 중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며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이 한국교회

의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Here and Now WORSHIP'의 예배 인도자인 한국기독교음악협회 송정미 회장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일 찬양 예배가 다시 일어나길 소망한다"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회복되길 바라고,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고백

이 있는 찬송가가 불러지길 바라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모여 드려질 수 있는 예배, 각 교회 예배 인도자, 가족이나 친구, 전도 대상자와 함께 와서 찬양하며 하나 되길 소망하며 예배한다"며 "첫 예배는 7월 7일 저녁 7시 압구정동에 있는 광야아트센터에서 드려진다"고 했다. 주요한 기자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성결대 김상식 총장 동참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 보호를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참여는 목원대학교 이희하 총장의 지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상식 총장은 캠페인 참여 소감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 사용 권장 ▲폐 플라스틱 분리수거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전원 OFF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교내 종이 신문 폐지 및 온라인 신문 구독 등이다.

김상식 총장은 "성결대학교가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착한 소비 실천을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결대학교는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작년부터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을 위한 '클린어스(CLEAN:US)'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이



다. 안양시와 연계한 안양천 줄기, 속초 시와의 친환경 현장 체험, 수원 야구장과의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상식 총장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식 총장은 다음 '바이바이 플라스틱' 릴레이 챌린지 참여자로 서울 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과 연성대학교 권민희 총장을 지목했다. 주요한 기자

# 예수전도단 'MISSION CONFERENCE 2024' 7월 25~26일 열려

오는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교동 교회에서 MISSION CONFERENCE 2024(이하 MC 2024)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서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열정을 일깨우기 위한 시간으로 기획됐다.

주최회는 선교사 토크와 예배,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선교적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날

인 25일에는 예수전도단 부부 화요일 모임 팀이, 26일에는 서울대학지구 캠퍼스 워십 팀이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다.

이영진 팀장 대표간사와 김혜경 씨빙프렌즈 사무총장은 사회 영역에서의 선교와 성경이 말하는 통전적 선교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선교사 토크 시간에는 현장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 경험을 들을 수 있다.

오후 선택 세션인 '선을 넘는 선교사들'

은 세계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세계편과, 조선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비전에 동참하는 국내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수전도단은 "MC 2024를 통해 예수전도단의 첫 부르심인 선교의 파도가 온



파를 덮는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도한다"며 "서울지역과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 대회는 신전지 등 이단을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과 자세한 안내는 서울대학지구 인스타그램 @ywamcampus\_seoul과 MC 진행본부(02-2637-2060)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노형근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세이	40 힐링스토리 50 생명의 사랑-대일리뷰다-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성찬(오원호)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새어덴의 언약 (소감석)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생터 왕성교회 김요나 목사	30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4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50 노병단화
	8:00 20 신앙예세이 30 백세인생	20 명사들의 명망 50 신사랑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레슨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	00 비전메시지 - 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9:00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5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00 세계대마가행 40 신사랑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레슨 50 말씀의 생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10 새문개회사서	00 믿음의 리액션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50 말씀노트	20 말씀의 생터 여의도침례교회 국명호 목사 50 말씀의 생터 목길교회 임재호 목사	20 아메이징 그레이스	00 CBS NEWS 10 20 더 플링 50 살롱 살롱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00 한국교회를論하다 50 [생방송] CTS 뉴스	20 말씀의 생터 총정교회 옥성석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50 말씀의 창 - 청주금천교회 신영민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20 [말씀] 백근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강단 구세군대안본영 30 TV강단 만리현성결(조준철)	20 말씀의 창 -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 50 말씀의 창 -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신앙예세이 40 [워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	00 주일예배실황 공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북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위대한 유산	00 오 자유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용주 목사(갈보리교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문개회사서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5:00 40 7000마리들 - 스페셜	0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2024 전국노회 신임원 워크숍 특강 40 노크토크에 물어봐	00 [말씀] 김용준 목사(열린문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박윤호 목사(강화하늘중앙교회)	00 다크 더 로드 3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내 삶에 신학 - 성매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서울혜교회)	10 오직 주님만 슬로 50 목사님 금금해요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생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생터 분당성산교회 윤규현 목사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0 주만찬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50 행복다이아리	00 말씀의 창 - 아산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위십 50 더 매시지	10 크리스천 슈퍼맘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약(송규의) 30 TV강단 수원명성(유만석)	00 믿음의 리액션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저녁	19:00 0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정희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00 말씀의 생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생터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3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00 TV강단 강남중앙(장찬영) 30 TV강단 베다니(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윤차복 목사(영동포리교회)	0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언치유 50 CBS 교회소식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40 복음강단 - 영동영락교회 고요섭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다나엘 기도회	10 GOODTV 저녁의 기도 20 유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0 GOODTV 뉴스	00 다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 50 성경꿀이 이것이 금금하다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22:00 00 신앙예세이 40 [워킹온더바이블]성경의 땅	10 오희교회 금요집회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00 CBS NEWS 10 20 울포원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금요성령집회 -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아기	10 GOODTV 스페셜 2024 청년열두광주리기도회	00 [권퍼런스] 언디퍼티드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어덴교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콜링갯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주일예배실황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4 목회(사관학교)	10 새문개회사서	00 새어덴철야예배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TV찬양예배-한성교회	00 매일 주와 함께	00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00 선교사와 함께하는 8시간 미스바 밤샘회개 기도성회 2부	00 비전메시지 -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츠워십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안방의 찬양	00 명실고 인젠 재교회 이경영 목사 30 우리들의 지식살롱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30 잘 믿고 잘 사는 법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	00 말씀의 창 - 필그림선교회 양준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CTS 특선영화 50 바이블프로젝트	00 GOODTV 특별강중	00 [Global Sermon] Craig Groeschel's Ever Wonder Why?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10 새문개회사서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육한홍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CTS 경건예배 45 관석회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은혜와 찬양 20 말씀의 생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50 힐링송	10 [말씀] 박신용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이문석) 50 CBS 교회소식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omegawatches.com



SPEEDMASTER 38mm  
Co-Axial Chronometer

### ICONS THAT SHINE

오메가는 모델이자 배우, 오메가 브랜드 홍보대사인 카이아 거버와 함께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38mm를 선보입니다. 오메가의 새로운 크로노그래프는 52개의 다이아몬드가 파베 세팅된 베젤과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폴리싱 크라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이아 거버의 세련된 스타일에 완벽한 마무리를 더하는 타임피스입니다.

